

미 사도 바울 맥잡기: 왜 바울을 공부하는가?

성경말씀: 딤후3:10-17

오늘부터 사도 바울 맥잡기

구약의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레미야, 신약: 베드로, 요한, 바울

<위키백과>: 바울은 초기 기독교를 이끈 뛰어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교리를 전하려는 열정으로 아프리카(북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한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를 돌아다녔다. 무려 20,000km에 이르는 거리를 돌아다닌 그의 선교 여행과,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편(히브리서 포함 14편)에 달하는 그의 이름으로 된 서신서들은, 초대 교회사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이다. 그는 자신이 선교 여행 중에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맞았다고 말한다. 유대인에게 다섯 번 매를 맞고,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배가 파선했었다. 그렇게 그는 유대교와 구분된 기독교를 확립했고, 그 교회는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바울은 지성 없이 열정만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 열정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를 구약성경을 근거로 변증하는 지성적인 신앙에 뿌리를 두었다. 바울의 사상은 기독교의 교리, 역사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커서 혹자는 "예수님이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겠지만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평하기도 한다.

바울 일생 요약

이방인들의 유명한 사도. 그는 원래 히브리말로 사울이었으며 행13:13에서 처음으로 로마 이름인 바울로 나온다. 아마도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은 그 당시 이방 땅에 살던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으며 어쩌면 그의 친구이자 처음에 개종한 서기오 바울 총독을 기념하기 위해 그 이름을 사용했을지도 모른다(행 13:7). 그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출생하여 자기 아버지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물려받았다. 그의 부모는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며 그를 히브리 사람 중의 히브리 사람으로 양육하였다(빌3:5). 그 당시 다소는 학문과 문화로 유명하였으며 바울은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 뒤 그는 합당한 나이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당시 최고의 학자라 불리는 가말리엘의 지도하에 교육을 받았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아마도 그는 다소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 장막 만드는 일을 한 것 같다(행18:3; 20:34; 살후3:8).

그 뒤 그는 30세쯤(아마 AD35년경)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을 이끌게 되었다. 그는 가말리엘에게 교훈을 받고 율법을 알게 되어 바리새파의 엄격한 제자가 되고 열렬한 유대교 수호자가 되었으며 동시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 되었다(행8:3; 26:9-11). 그는 기적적으로 회심하였고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가 그에게 전부가 되었다(행9:22, 26).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그에게 나타나셨고(행26:15; 고전15:8) 그는 그분께 자기의 온 마음과 혼과 힘을 주었다. 그래서 그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으며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하고 전파하는 일을 하였으며 특히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일을 하였다. 그는 기독교 정신이 순수하고 고상하며 그 안에서의 경배와 그로 인한 영향력이 실제로 강하고 분명함을 알게 되었으며 그래서 유대교의 의식과 예식과 경배를 반대하고 이로 인해 자기 동포로부터 심한 고통과 핍박을 받았다. 그들의 고소로 인해 그는 가이사랴에서 약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그 뒤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갔다. 그 이후의 재판 결과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초대 교회 성도들은 그가 2년 뒤 옥에서 풀려났다가 다시 로마로 가서 옥에 갇혔고 결국 네로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전한다.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학문을 다 배웠고 그리스 문화에도 익숙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그리스말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그리스 철학자들과 변론하며 그리스 시인들의 시를 인용한 것 등에서 잘 드러난다(행17:28; 고전15:33; 딤후1:12). 그러나 그리스 교육이 그를 지배하지는 않았다. 그에게는 그리스도 신앙의 영적 본질과 전 세계적인 우주관 등이 심오한 영향을 미쳤다. 물론 그러한 신앙은 신실하게 그것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성격을 다 순화시키고 고상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의 사랑을 직접 느꼈다(갈1:12).

대부분의 사도들과 교사들은 유대교와 의식과 예식과 교리 등을 굳게 붙들었고 그런 교리 안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기독교를 자기들이 간직한 토양 위에 접붙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 즉 그들에게는 유대교가 기독교라는 '새로 접붙여진 가지'를 지탱하는 그루터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같은 좁은 견해에서 벗어나 기독교가 전 우주적인 신앙 체계임을 처음으로 보인 듯하다. 다른 이들은 기독교를 새로 접한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 준수 등을 부여하려 하였지만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보여 주었다(엡2:11-22). 그의 모든 수고는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그는 위선 태도를 보이는 베드로를 서슴지 않고 책망하였다. 그가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와 로마에서 근 5년 동안 옥살이를 한 것도 결국 이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바울 사도는 세 차례나 선교 여행을 하였으며 그 대부분을 걸어서 다녔고 그 내용은 사도행전 13-28장과 고후11:23-29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여행한 지역과 개종시킨 사람과 세운 교회와 참고 이겨 낸 고난과 노력과 수고와 행한 기적과 기독교를 변호하고 알리기 위해 기록한 편지들과 그가 받은 계시와 그가 이룩한 선한 일과 순교자의 죽음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비범한 사람이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바울의 성격은 그가 기록한 서신서에 잘 드러나 있다. 이 편지들에서 우리는 열정적인 한 사람을 변화시켜 후에 있을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게 만든 힘 즉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된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남을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며 자신을 희생하였다. 그는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히브리서에 이르기까지 모두 14편의 서신서(히브리서 포함)를 기록하였고 이 안에서 기독교의 원리와 본질을 설명하였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테전서, 디모테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바울 당시의 세상

바울의 기독교 선교활동은 기원후 35년에서 60년 사이 정도에 이루어졌다. 당시 로마 제국은 지중해 전역을 통치하고 있었다.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훈련된 레기온(신약성서의 마가복음서에서는 군대로 번역)의 정복전쟁으로 지중해 다른 민족들과의 해게모니 다툼에서 승리해 군사적인 힘을 바탕으로 지중해 주변을 장악한 로마제국은 기술 및 정치 조직에서 다른 지중해 주변의 나라들보다 우위에 있었다. 거기에 그리스(헬라)의 예술적이고 지적인 유산이 합쳐져서, 지중해 세계는 하나의 공통된 도시문명으로 통합되었다. 이를 그리스-로마(그레코-로만)문명이라고 부른다.

사도 바울 인생의 장면들과 사건들

앨버트 반즈(Albert barnes), *Scenes and Incidents in the Life of the Apostle Paul/ 사도 바울의 인생의 장면과 사건들*(1869년, 약 500쪽)

반즈의 서문:

이 책은 기독교의 확산에 기여한 인물들의 구체적인 예를 묘사함으로써, 기독교가 세상에 처음 진출하면서 세상에 미친 영향을 서술하기 위해, 기독교의 교리와 의무를 보여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이 책의 구성 원리는 다음과 같다. 참된 종교의 본질은 그 종교를 수요하고 믿는 사람들의 삶에 가장 잘 묘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조나 어떤 교리적 선언 같은 추상적인 진술문보다, 기독교의 요구 조건들에 순응하며 산 사람들의 예를 통해 기독교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여러 환경 속에 놓인 채 시험을 당하고 의무를 수행하며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보면 그 예를 통해 그 종교의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나는 이 책을 기록하였다. 이런 선한 사람의 기록들은 교회에 큰 가치를 부여하며 기독교라는 참 종교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보여 준다. 그래서 선한 사람의 전기가 필요하다.

물론 이런 원리에 가장 부합되는 인물은 기독교를 창시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

다음으로 이런 원리에 가장 부합한 사람은 사도 바울일 것이라고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인간의 전기는 기독교인 모두에게 큰 위안을 주며 기독교가 무엇인지 아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고전4:9,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자같이 마지막에 두셨나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의 구경거리는 무대 위의 배우를 뜻한다.

딤후1:16,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가장 큰 긍휼을 베푸셨다. 으뜸가는 긍휼, 본이 되게 하려고

그가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 세계 각처를 다니며 겪은 모든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처한 위치와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가를 보여 준다.

그는 여러 종류 문화권의 사람들, 사상가들을 만나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의 이런 노력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본성과 우리가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를 알게 된다. 노예, 총독, 왕, 카이사르, 유대인, 이방인,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남녀노소, 마귀 들린 사람, 동역자, 제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것은 바울이 살던 세상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간 것과 비슷하다. 하나님, 사람, 성경 동일하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선교나 지금의 선교나 내용이 비슷하다.

사역도 마찬가지이다.

이 책은 바울의 전체 일생의 전기라고는 할 수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저술을 통해 많은 자료를 얻었고 그들에게 감사한다.

앨버트 반즈는 누구인가?(Albert Barnes, (December 1, 1798 - December 24, 1870)
미국의 신학자, 200년 전에 산 성도, 원래 부모는 감리교인, 그러나 장로교인이 됨, 1823년 프린스턴 신학교 졸업, 1825년에 장로교 목사,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장로교회(1825-1830), 필라델피아 제일장로교회 목사(1830-1868).

그는 1830년대에 14권의 반즈 주석을 썼다. 1870년까지 무려 100만 부 이상 팔림

그는 또한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는 설교, 유명한 설교자

미국의 장로교는 계속해서 분열해 왔다.

반즈 당시 1937년부터 Old school New School 분열이 생김

Old school은 프린스턴의 찰스 핫지, 전총적인 칼빈주의, 부흥회, 사경회 등 반대

New school: 조나단 에드워즈, 앨버트 반즈, 결국 1836년에 이단성 심판을 받음

인간의 자유 의지 인정, 하나님의 구원 초청에 인간이 반응하고 나가야 한다. 칼빈주의와 반대 칼빈주의 제한 속죄론(구원받는 자들에게만), 그는 모든 사람에게 피가 흘려졌다.

그는 70세인 1868년 12월, 필라델피아에서 <70년의 나의 인생>이라는 연설을 함

아픈 가운데 오래 끌면서 죽기보다는 단번에 발리 죽기를 소망함

2년 뒤에 친구 집에서 조사를 낭독하다가 갑자기 죽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도록 호롱불로 공부, 시력을 잃을 정도로

맥잡기 내용

서문: Preface

1. 초기 훈련 Early Training of the Apostle Paul
2. 박해자 사울 Saul, A Persecutor
3. 사울의 회심 Conversion of Saul of Tarsus
4. 하늘의 부르심에 순종함 Paul's Obedience to the Heavenly Vision
5. 아라비아에서의 사울 Residence of Paul in Arabia
6. 안디옥에서의 바울 Saul Brought to Antioch
7. 바울과 바나바의 파송 Saul and Barnabas Sent Forth
8.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 Paul and Silas at Philippi
9. 아테네에서의 바울 Paul at Athens
10. 고린도에서의 바울 Paul at Corinth
11. 에베소에서의 바울 Paul at Ephesus
12. 밀레도에서의 바울 Paul at Miletus
13.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바울 Paul in the Temple at Jerusalem
14.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의 바울 Paul Before the Sanhedrim
15. 예루살렘 성채 안에서의 바울, Paul in the Castle at Jerusalem
16. 벨릭스 총독 앞에서의 바울 Paul before Felix
17. 베스도 총독 앞에서의 바울 Paul before Festus
18. 아그립바 왕 앞에서의 바울 Paul before Agrippa
19. 로마 향해 The Voyage to Rome
20. 멜리데에서의 바울 Paul at Malta
21. 로마에서의 바울 Paul in Rome
22. 네로 앞에서의 바울 Paul's First Trial Before Nero
23. 죽음 앞에서의 바울 Paul's Anticipation of Death
24. 바울의 죽음 Death of the Apostle Paul

이 순서를 따라가면서 그의 서신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끝나고 나서 맥아더의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리더의 조건

딤후4:3-8

(딤후 4:3)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 두고

(딤후 4:4)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 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딤후 4:5)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 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네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딤후 4:6)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딤후 4:7)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딤후 4:8)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冠)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먼 사도 바울 맥잡기: 바울의 어린 시절 교육과 아버지의 영향

성경말씀: 행7:58-8:1

특별한 사람들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일을 위해 태어나고 양육된다.

다소의 사울, 특별한 사람, 그의 서신들, 그의 성품, 영향

오늘, 그는 어디서 태어났고 그의 가정은 어떠했으며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성경에 그의 가족 이야기는 거의 없다. 그의 아버지 바리새인, 그리스의 도시 다소, 로마 시민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함, 배도한 자들이나 이단들을 대적하는 열정, 행7:58-8:1에 처음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함, 스테반이 순교하는 장면에서 스테반의 죽음에 동의함 위대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세상 역사와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끌어가신다. 자신의 일을 위해 사람들이 필요하다(렘 1:5).

하나님의 특성: 위대하다. 무한하다. 무한한 우주, 거의 무한대의 바다, 위대한 사람의 위대한 지성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위대한 지성/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내놓으신다.

다소의 사울이 그런 사람 중 하나.

그 당시 초기 기독교는 지성을 필요로 하였다. 전 세상 역시 그런 지성을 필요로 하였다.

기독교의 확산과 변호를 위해, 사울의 교리 설명과 변호, 선교 전도 필요, 기독교의 원리들 개발, 조직적인 교리 체계 확립, 다가올 세상에서 인간의 구원/믿음 체계 확립

이 점에서 누구보다도 바울의 역할이 컸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그의 여행과 설교 그리고 수고를 다루고 있다. 14권의 신약성경

그의 서신들은 특별한 점이 있다. 역사 기록이 아니다(복음서, 사도행전, 계시록), 설교가 아니다.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 변호이다. 신약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교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의 서신서는 기독교를 창시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계획을 설명한 것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스스로 하지 않고 자신의 죽음 이후에 자신의 사도(파송된 자)를 통해 하셨다.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의한 대신 속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화된다.

죽기 전에 이런 것을 제대로 설명하기는 불가능, 그래서 죽음 이후에 한 사람을 택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 부활의 의미를 완벽하게 기술하고 전하게 하심, 그 사람이 다소의 사울이다.

그는 한 번도 생애에서 나사렛의 예수님을 만나 적이 없다. 그러므로 스스로 목격한 것을 증언할 수 없었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그분과 동고동락하며 3년 반 동안 직접 훈련을 받지도 못하였다.

그런데 사도들이 선택되지 않고 바울이 선택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 시점에 다소의 사울의 성품, 훈련, 교육이 필요하였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약과 복음서와 다른 사도들의 글을 통해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사도 바울의 선신서가 있으면 좀 더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다.

교회의 각종 문제: 고린도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서 등

목회자: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지금까지 태어난 인간 중에 사도 바울만큼 인간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또한 자기의 의견(견해 혹은 사상)을 인간 세상에 가장 크게 퍼뜨린 사람도 사도 바울이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베이컨, 칸트, 존 로크 등 유명한 사상가들을 다 합쳐도 사도 바울이 미친 영향에 비할 수 없다.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이집트의 성인들과 제사장들을 다 합쳐도 비교가 안 됨

그는 그 당시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모든 지성들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BC 484-425)보다 더 많이 여행하였다. 역사의 아버지

다마스쿠스,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아테네, 빌립보, 로마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가 가면 모든 곳에 변화가 생겼다. 어떤 사람들의 사상보다도 더 지속되는 사상을 남김, 세상을 뒤집어엎음(행17:6)

그는 인간의 편협함, 미신, 철학, 교만, 연약함, 모든 정욕, 이교도들의 극심한 우상숭배, 신전 매춘, 을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눈으로 보았다.

그는 기독교하는 새로운 체계의 출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미칠 것이다. 마16:18

그 사람이 지금 젊은 청년으로 행7장에서 우리 눈앞에 와 있다. 무엇이랴도 자기가 계획한 것은 다 하고야 말겠다는 결기에 찬 청년으로,

한편 여기에 스테반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온다. 그는 기독교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변호하고 있었다.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 오직 구약 시대 대언자들이 성취되리라고 한 것들만 말하고 회개를 촉구하였다.

행7장은 스테반의 유명한 연설

51-35절에 대중은 폭도로 변하여(54) 그의 다음 말을 들은 뒤(55-56)귀를 막고 그를 죽여 버렸다.

스테반은 자기가 본 것을 말했을 뿐이다.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순교

바로 이 자리에 다소의 사울이 서 있었다. 이유는 모른다.

그는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다. 돌을 던지지 않았다. 말을 하지도 않았다. 다만 동의하였다(8:1). 조용히 있던 이 다소의 사울이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박해자 중 하나가 되리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누구보다 더 많은 에너지, 열정, 분노, 세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땅에서 제거하려고 기독교인들을 지독히 박해하였다.

비록 아무 말은 하지 안했지만 그가 동의하였으므로 군중들은 옷을 사울에게 맡김(7:58)

사울의 증언(행22:20)

도대체 이 청년은 누구인가.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살았을까? 왜 그 폭도들에 동조하였을까? 동조했는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그의 회심 이후 기록들을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답할 수 있다.

그의 어린 시절 그리스/유대 교육과 그의 아버지의 교육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 그의 아버지의 영향

행23:6,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모른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

바울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한 군데도 없다.

그의 누이가 있었고 누이의 아들이 나온다(행23:16). 그의 먼 친척들이 먼저 기독교 믿음으로 돌아섰 다(롬16:7). 그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른다.

어린 시절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어머니이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그러나 남자의 경우에는 소년 시절에 들어서면서부터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아버지의 생각, 성품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한 사람의 미래가 형성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경건함 등이 아버지를 통해 전달된다.

직업, 세상관 등도

그러면 사울이 바리새인의 아들이므로 바리새인에 대해 알아야 한다.

종교심이 심히 강한 사람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확고히 믿는 사람

율법과 정부의 확실성을 믿는 사람(법치주의자)

자기의 감정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

도덕과 윤리 면에서 완벽을 기하려는 사람

열심히 자기 신앙을 전하려는 사람

자기 생각, 조상들의 전통에 갇혀서 편협하게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다른 의견을 참아주지 못하는 사람

결국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핍박도 불사하는 사람

스테반의 죽음 현장에 나타난 다소의 사울은 이런 성품을 그대로 보여준 전형적인 바리새인 그의 아버지는 또한 로마 시민이었다. 그래서 그는 나면서부터 시민이 되었다(행22:28).

시민권은 돈을 내고 사거나 큰 봉사에 대한 대가(주로 정복 전쟁에서 싸움)로 주어졌다.

어떤 식으로 시민권을 받았든 그 당시에는 대단히 명예로운 것이었다.

그 당시 로마 시의 경우 20-35%가 노예

위기를 당할 때 구해주는 특권, 아무나 매를 때리지 못한다.

로마 제국 어디든지 다닐 수 있다. 바울은 시민권의 특혜를 여러 차례 주장하고 결국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 이것이 있어야 이방인 선교 가능하였다. 다른 사도들 불가능

2. 그의 출생 장소: 다소

그는 어린 시절 그리스 도시에서 교육을 받았다.

라이프 사전:

‘기쁨’이란 뜻. 소아시아 남부 길리기아 주의 수도(행22:3). 사도 바울의 고향. 지중해에서 내륙으로 약 20km 들어간 다소 강 연안의 길리기아 평원에 위치하여 비옥하며 농산물과 목재가 풍부하고 염소털로 된 모직물과 천막 제조로 유명했다(행 18:3). B.C. 850년경부터 아시리아,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로마의 속주가 되었다.

또한 시드누스 강둑에 세워진 다소는 동서양 문화가 교차하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일찍부터 철학과 학문이 발달하였고 유명한 대학도 있었다. 이곳을 통해 그리스 문명이 활발하게 발달했으며 많은 철학자들이 배출되기도 하여 소위 소아시아의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였다. 좋은 학교들, 유명한 학자들 배출, 스트라보 같은 사람은 당시 다소가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같은 위대한 도시였다고 한다.

지금은 가난한 터키 사람들이 사는 소규모 빈민 도시, 바실은 당시 다소가 시리아 사람들, 길리기아 사람들, 갑바도기아 사람들의 연합 장소였다고 한다.

그런 학문의 도시에서 그는 유대인 소년으로 유대 교육

그러나 동시에 그는 주변 아이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그리스말과 문학을 배웠다.

유대인 아버지를 통해 그는 유대 교육, 직업을 배웠고 그리스 학문의 도시에서 그리스말과 철학, 문화를 배웠다. 그래서 그는 언제라도 그리스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었다(행17:28; 딤후1:12 등)

그가 여행한 모든 나라들은 그리스말을 사용하였다. 아마도 이방인들을 만나면 그리스말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방인들의 교회에 보내는 그의 모든 서신들도 그리스말로

유대인 교육의 특징: 할례를 주고 율법과 직업을 가르치는 것

직업을 가르치지 않는 아버지는 도둑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다.

가말리엘의 말: 직업이 있는 사람은 울타리를 두른 포도원과 같다. 안전하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열심히 그에게 평생의 직업이 될 것을 가르쳤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장막을 만들면서 복음 사역을 수행하였다(행18:3)

3. 가말리엘 교육

그는 가말리엘 밑에서 교육을 받았다(행22:3; 26:4).

아마도 그는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로 공부하러 왔을 것이다. 율법 공부는 대개 13살부터

아버지의 소원: 교육을 잘 받아 훌륭한 랍비가 되는 것

라이프 사전, 가말리엘: ‘하나님의 상급’이란 뜻. 유명한 유대인 율법학자요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은 바리새파의 양대 산맥인 샴마이 학파(율법 해석을 엄격히 한 학파)와 대조를 이룬 힐렐 학파(율법 해석을 유연하게 한 학파)를 창시했던 힐렐의 손자이자 시므온의 아들로 당대 최고의 랍비라는 명성과 함께 못 백성의 존경을 받았으며 기독교 초기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할 때 교회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했다(행 5:34).

가말리엘: 율법의 아름다움이라는 호칭이 붙음

가말리엘: 솔직하고 냉정한 성품의 소유자, 행5:34-40, 사도들을 풀어 줌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풀어 주게 함
그의 명성, 위치, 존경심 등으로 인해 산헤드린은 그의 말을 들음
그 역시 바리새인이었으나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동포들로부터 존경의 대상(5:34), 아마도 니고데모나 아리매대 요셉 같은 사람
그는 또한 그리스 학문도 정통하였다.

그는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정의롭게 일들을 판단하였다.

바로 이런 성품들이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결론

종교적 열심, 말도 못한다. 그래서 스테반의 죽음에 동의한다.

그러면서도 자제심이 있다. 그러나 율법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는 진리를 향한 분노가 화산처럼 터져
나와 그리스도인들을 맹렬히 핍박한다(행9:1). 심지어 외국에까지 가서도 이 일을 수행하려고 한다.
즉 진리로 인해 확신이 서면 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열정이 폭발하는 성품, 외국에까지 감
이것이 그의 선교의 원동력이 된다.

교훈: 부모의 열정적인 아이들 교육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꾼다. 확고하게 하나님, 그분의 말씀, 진리
편에 서는 아이들을 만들어야 한다. 세상 교육도 잘 시켜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

3 사도 바울 맥잡기: 기독교 박해자 다소의 사울과 박해의 결과
성경말씀: 행9:1-2

지난 시간: 바울의 어린 시절 교육과 아버지의 영향, 사울, 아버지, 도시, 선생의 영향, 철저한 바리새인 스테반의 경우에서처럼 잘 참지만 종교적 열심이 폭발하면 무서운 일을 하는 바리새인 스테반 사건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행8:1). 행1:8의 성취

당시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성전에서 주님 기다리면 재림이 온다. 물건 처분 공유 등 그러나 주님께는 이방인들의 회심 계획이 있다.

아직 이방인 가운데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함,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 독실한 사람들이 스테반 장사(2)

사울의 등장, 교회 핍박(3)

그 결과 널리 퍼져 나감(4), 1:8의 성취

행8:5-40은 팔호에 해당하는 구절, 원래 8:4 다음에 9:1이 나와야 함

사도들의 행적이므로 바울에 대해서만 기록할 수 없다.

그래서 8장에서는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복음 선포하는 것,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선포 이제 남은 것은 이방인, 이 일을 위해 이방인 사도 필요, 다소의 사울이 가장 적합하다.

왜 다소의 사울은 핍박자가 되었을까?

사울은 드디어 산헤드린 공회의 재가를 얻어서 법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 핍박(행9:1)

산헤드린 공회: '함께 둘러 앉는다'는 뜻.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통치) 기관, 모세가 임명한 70인의 장로회(민 11:16)에 그 기원을 둔다. B.C. 3세기경 장로 중심의 귀족 회의에서 출발되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며 공회원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제사장 계급을 독점), 서기관, 장로 등 백성의 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율법에 따라 70명을 정수로 하였다(의장 포함 71명). 로마 통치하에서도 정치 문제(사형권은 로마 당국에만 있었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 정책 의결 기구였으며, 모든 안건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주로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주관하며, 성전의 치안을 유지하는 문제들을 다루었다.(라이프성경사전)

그 당시 그는 청년, 막 교육을 마치고 공적 생애로 들어가려 함(아마 30세쯤), 참으로 흥미로운 일 청년, 그것도 잘 교육받은 교양 있는 청년, 자유를 사랑하는 교육을 받은 청년이 극력한 핍박자가 됨, 청년의 대는 생각이 자유롭다. 나이가 들수록 사상이 고정된다. 이해하기 어려움

그런데 종교라는 것을 이해하면 그가 핍박자가 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1. 갈1:13-14

2. 비느하스 사례(민25:7-13),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잇딤에서 바알브올을 숭배하고 그 형벌로 진영 전체에 염병이 돌 때 이스라엘 남자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 고스비와 동침하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을 단번에 칼로 쳐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을 약속받은 인물이다. 바울에게는 이런 열정과 영웅심이 있었다.

3. 고후3:12-4:6, 유대인들의 마음에 베일이 있다.

4. 롬10:1-3, 무지한 열심

5. 그 결과: 그의 양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요16:2).

6. 그의 고백(행26:9)

그는 모든 회당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박해함(26:9-11)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않고 박해(8:3)

7. 그래서 그는 노년에 이 모든 것에 대해 회개한다(딤후1:13, 16)

산헤드린 공회는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종교에 관한 한 사법권을 소유함

다마스쿠스에는 유대인들이 많았고 또 스테반 사건 이후 여러 사람들이 거기로 이주함

기독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 제거 필요, 가장 적임자가 다소의 사울이라고 산헤드린은 판단함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사상은 항상 핍박을 받았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종교나 철학에서 새로운 관점이 제시될 때 많은 박해가 따랐다.

저자인 반즈는 그리스 사상가/철학자들의 삶을 보여 줌

1. 페리클레스(BC 495-429)와 아낙사고라스

아테네하면 어떤 게 떠오르는가?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보통 '민주주의'와 '철학'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귀결되지 않을까? 페리클레스로 대표되는 민주주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그리스 철학.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페리클레스 사후 무너지고 말았지만, 아테네의 철학은 거의 천 년간 철학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훗날 알렉산드리아가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아테네를 능가했지만, 철학에 관해서는 여전히 아테네가 최고 권위를 유지했다.

아테네 철학의 도입자: 아낙사고라스, 당시 아테네에는 페리클레스라는 걸출한 정치가가 있었다. 그는 그리스 문명의 개화와 시민들의 교양 고취에 힘썼다. 그는 학자나 예술가들과의 친분 유지에 힘쓰며 아테네 문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민주주의와 그리스 문명이 만개한 이 시대를 우리는 페리클레스 시대라 부른다.

페리클레스는 아낙사고라스를 아테네로 초빙한다. 인물은 인물을 알아보는 법.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라 불리는 페리클레스 시대를 이끈 페리클레스가 친히 선택한 인물이 바로 아낙사고라스이다. 여기서 밀레토스 출신으로 페리클레스의 연인이자 아테네 사교계의 여왕이었던 아스파시아의 입김이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대략 기원전 462년부터 432년까지 30년간 아테네에 머물며 사상 활동을 펼치게 된다.

아낙사고라스의 철학 정리: 모든 것은 그냥 생길 수 없다. 모든 것에는 지적 설계자가 있다. 그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유로 너무나도 시대를 앞서갔던 것일까? 페리클레스가 늙어가며 정적들은 그가 초빙한 친구들을 공격했다. 그 결과는 그는 감옥에 갇히고 결국 유배당함, 천하의 페리클레스도 구를 구하지 못함

2. 소크라테스(BC 469-399), 그는 남을 가르치는 일 즉, 철학적 토론에 매진했는데, 남루한 옷차림으로 광장을 거니는 그에게 다양한 계층의 제자들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또한 강의를 통해 세속적인 명예와 부를 누렸던 소피스트(Sophist)와는 달리 소크라테스는 가르침의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신성모독과 아테네 청년들을 현혹한다는 죄목으로 사형판결을 받았다.

3. 플라톤(BC 427-347),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는 두 번 감옥, 한 번은 노예로 팔림

4. 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 역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테네에서 도망함, 아테네인들이 소크라테스를 죽음에 몰아넣은 것 같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테네를 떠났다는 것이다.

5.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그분의 제자들 다수가 순교

그 이후로 기독교는 세계 도처에서 새로운 사상이라는 이유로 수없이 핍박을 받음

우리 주님의 말씀, 너희가 죽이지 않은 대언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왜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을까?

종교든 철학이든 사상이든 박해를 받는 데는 거의 비슷한 이유가 있다.

기독교가 초창기부터 이렇게 심한 박해를 받은 데도 이유가 있다.

1. 사람에게에는 의견의 전쟁이 있다. 사람의 의견은 사실상 사람의 일부, 그래서 의견은 사람의 자유나 생명만큼 소중하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표현된 것, 그의 영향력과 명성을 표현한 것 그가 인생을 살면서 체험한 것들, 공부한 것들, 목격한 것들의 결과, 그러므로 이것을 공격하는 것은 그를 공격하는 것, 그의 인생 전체를 공격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사상은 언제나, 어디서나 큰 핍박을 받게 마련이다. 그러다가 그것이 사회에서 수용이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사람들은 과거의 핍박을 잊어버린다.

더욱이 이런 의견이 우리의 양심의 문제, 종교의 문제이면 사람들의 감정이 폭발하게 된다.

2. 세상에는 이미 어떤 의견에 따라 형성된 조직과 기관이 있다. 새로운 사상은 이런 조직과 기관에

위협을 가한다.

더욱이 옛날에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신정국가를 유지하였다. 종교는 법에 의해 정해졌다.

국가의 신이 있다. 그 신이 강하면 그 나라가 강하다 등의 인식

그래서 모든 국가는 우상 숭배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모든 신들이 잡신이며 심지어 황제도 사람에 지나지 않으므로 숭배하면 안 된다.

그 결과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를 공격함

유대교든, 다른 이방 종교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으므로 그들의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딸린 조직과 기관이 다 타격을 받는다. 에베소 사람들(행19:23-27)

3. 국가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사용하여 인간의 양심을 억누르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런 악한 종교 뒤에 숨어 있는 사탄은 온갖 계락을 동원하여 사람들의 양심을 제압하려 하였다.

그 결과 영혼이 자유를 가져다주는 기독교는 탄압의 대상,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미워한 것 중세 암흑시대를 보라.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동원하여 무려 1000년 이상 유럽 사람들의 양심을 제어하였다.

4. 또한 사람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에 반대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독교를 통해 선포되자 마귀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인간의 반역성을 자극함으로써 기독교 박해

그리스도를 선포함이 한 부류(고전1:18).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일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칭의, 구원, 영원한 심판 등의 교리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압박함, 세상을 거부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자기 부인, 다른 사람 사랑 등은 부패한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없다.

이들은 자기들의 윤리 기준, 행위 구원

인류 역사는 극명하게 이를 보여 주며 구원받기 전의 사도 바울 역이 이런 범주에 속한 사람이었다.

기독교 진리 핍박의 결과

이렇게 인류가 근 2000 동안 기독교를 박하고 얻은 것은 무엇일까?

1. 선한 것과 진리 그리고 진실은 결코 박해를 통해 파멸시킬 수 없다.

순교자들의 피가 기독교의 씨이다. 교회사를 보면 피 흘린 발자취를 알 수 있다.

2. 박해는 어떤 종교의 확실성, 그 종교를 따른 사람들의 실체를 확인하는 시금석이다.

그 종교가 진실한가를 보여 주지는 않는다. 기독교 말고도 박해를 당한 종교들이 있다.

십자가 처형 당시의 백주장의 말(마27:54,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처형 자체가 성경에 기록된 것과 일치함을 박해를 통해 보게 되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독교회의 순교자들은 세상에게 자기들이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보여 주었다. 폴리카프, 서머나 교회의 목사, 폴리카프는 체포될 때 너무도 의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병사들에게 식탁을 베풀어주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평생 섬겼던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총독은 폴리카프에게 이제 고령이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경배하라고 설득했다. 폴리카프는 그러나 “86년간 그분을 섬겼으나 나에게 한 번도 고통을 준 적이 없는 나의 왕을 어찌 모독할 수 있단 말이나”고 대답하고 꿈에도 그리던 영원한 나라로 당당하게 걸어갔다.

3. 기독교인들의 박해는 결국 인류에게 빛을 가져다주었다.

콜럼버스, 지구가 둥글다, 모멸, 그러나 결국 진실로 드러났다. 신세계, 미국, 근대 시민국가 사울과 초기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순교는 결국 기독교를 온 세상에 진리의 종교, 사랑의 종교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

요셉을 보라. 형들이 그를 박해하였다. 결국 그의 도움으로 생명 유지, 이스라엘 국가 건설

우리에게 이런 것이 와도 롬8:28 기억하며 이기도 나가자.

마 사도 바울 맥잡기: 기독교 박해자 사울 회심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다
성경말씀: 행9:1-22

지난 시간: 다소의 사울, 맹렬하게 기독교 박해, 남녀를 잡아 감옥에 넣고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잡아오려 함(행9:1). 그 이후로 심한 박해, 박해의 결과: 진실과 진리는 결코 멸절되지 않는다.
오늘 드디어 다소의 사울이 회심함, 새로운 인생길이 열림, 1. 여전히 율법 존중, 2. 하나님을 향한 열정, 선포 및 개종의 열정,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희생을 당하며 사명 완수
사울의 회심: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최대의 사건, 회심 기록(행9, 22, 26장)

위대한 지성의 회심

그는 이방인들의 사도(갈2:9), 그의 사역이 없었으면 복음 선포, 기독교 불가능, 현 시대 국가들 불가능
그러므로 그의 회심은 도시를 빼앗거나 제국을 건설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

도시의 주인이 바뀌어도 도시의 모든 것은 불변, 제국은 다 사라진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위대한 지성의 소유자, 한 지성의 변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도시, 제국의 주인은 다 사라지기 마련이다.

느부갓네살, 고레스, 알렉산더, 아우구스투스, 징기스칸, 나폴레옹 모두 사라짐

바울의 회심과 같은 위대한 변화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회심의 결과: 죄에서 거룩함, 불신에서 믿음으로, 인간의 야망에서 구원자를 섬기는 것으로, 정복
모의에서 사랑을 전하기 위한 계획으로, 세상의 욕망 추구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역사상 마르틴 루터, 요한 웨슬리, 찰스 스펄전 등이 이런 예

이런 사람들, 세상 것을 추구했어도 성공했을 사람들, 그러나 세상을 섬기려는 에너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에너지로 전환함, 그 결과 그들은 기독교라는 영역에서 이름을 남김
세상에는 나처럼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그들도 변화가 된다.

그런데 이들의 변화는 인류 역사에 큰 발전을 가져오지 못한다.

그러나 다소의 사울, 마르틴 루터 등의 위대한 지성이 회심을 하면 세상을 바꾸어버린다.

즉 그들 이전의 세상과 그들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다.

다소의 사울: 아버지 교육, 도시 교육, 좋은 스승, 에너지 등 모든 것을 갖추었다. 진정한 애국자
그의 표현 빌3:4-6

에너지, 열정, 지식, 체력, 웅변, 설득력, 로마 시민권 등이 큰 변화를 가져왔다.

다소의 사울은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 큰 사명을 수행하고 있었다(1-2).

말 그대로 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한 시도

새로운 종교가 자기 나라에서 일어남, 묵과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가담함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에게, 산헤드린 공회 의장에게 가서 승인을 받음(9:1)

기독교 초기에 산헤드린 공회는 기독교가 퍼지는 것 반대(행3-4장)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행4:1-2, 5-6, 15-17; 5:17, 27)

그런데 위협하고 막으면 막을수록 기독교는 왕성하게 자라남(5:41-42)

이러다가는 유대교가 사라짐, 성전의 모든 의식 희생물 폐지, 그들이 지키던 모든 의식들 사라짐
결국에는 자기들의 기득권이 다 사라짐

사울은 조용히 기독교를 예의주시하였다. 그의 종교적 열정: 결국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결론

사울의 회심(9)

스테반이 죽음(행7), 그 결과 박해의 물결, 그런데 이들이 다른 곳들로 흩어짐(행8:1, 4)

그들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서 열심히 전다하는 소식이 들려옴

이대로 두면 예루살렘에서처럼 큰 문제, 사명을 받고 다마스쿠스로 감 (*)

약 1주일 가야 하는 거리(218킬로미터)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함(3). (*)

주님의 질문(4), 그의 사명 행26:14-18, 가장 위대한 지성의 변화를 단순하게 묘사함

이것을 통해 기독교가 세상에 전달되는 일이 발생함, 그 위대한 사건은 몇 초에 이루어짐
 가장 큰 변화, 그는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름(9:6)
 결국 그는 쓰러져서 사흘 동안 음식을 먹지 않음(9:9)
 주님은 이미 할 일을 알려주심(9:6)
 주님은 이 일을 위해 아나니아라는 무명의 제자를 사용하심(10-19)
 9:11 곧은 거리, 동문에서 서문까지, 약 4.5킬로미터(*)
 동문 근처 유다의 집, 우물 침례(18)
 아나니아의 의심, 그는 기도하고 있다(11).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종교가 진실하다면 누군가가 전해야 할 때
 사울이 적임자(9:15)
 그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구로 택하심

사울의 회심: 진짜, 진정성, 완전무결한 변화

그의 세상관, 역사관, 종교관, 인생관의 변화, 그 이후의 사람은 전혀 판판
 더 이상 박해자가 아니다. 자기가 박해하던 것을 옹호하는 자(행9:20-22)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온갖 애를 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됨

1.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회심: 영혼의 존재 목적이 바뀌는 변화, 의지, 마음, 애착이 변하는 일
 미움에서 사랑으로(대상,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제자들)
 자기 의 신뢰에서 하나님의 의 신뢰
 유대교 종교적 열정에서 기독교의 사랑의 열정
 이런 변화가 모든 성도에게 일어나야 한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방향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보고

마르틴 루터, 요한 웨슬레, 찰스 스펠전, 마틴 로이드 존스

지금 식으로 말하면 진화론자가 창조 신앙
 윤회 믿던 사람이 부활 믿음

위대한 회심: 구원받기 전이나 후에 변하지 않고 그에게 있던 좋은 것

1. 법을 지키려는 마음
 로마 시민권 주장(행16:37; 22:25; 23:27)
 대제사장(행23:2-5)
 잘못했으면 죽어도 좋다(행25:10-11),
 세상 권력에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겠다(롬13:1-7)
2. 투명한 양심(행23:1; 24:16; 26:9; 빌3:6; 고후1:12)
3. 하나님을 향한 열정
4. 복음 선포(마23:15)
5. 역경 감당(고후11:23-28)

2. 회심의 증거

1.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빌1:20-23)
2.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고전10:31-33)
3. 그리스도를 위해 손해를 당하는 것(빌3:8)

15 사도 바울 맥잡기: 하늘의 부르심에 순종한 다소의 사울과 하나님의 뜻
성경말씀: 행26:19-23

지난 시간: 맹렬하게 기독교 박해하던 다소의 바울, 다마스쿠스 도상에 주님을 만나 회심

회심: 영혼의 존재 목적이 바뀌는 변화, 의지, 마음, 애착이 변하는 일

모든 것이 순식간에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방향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새로운 인생길, 인생관이 달라짐, 복음 선포의 열정, 역경, 희생을 당하며 사명 완수

회심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는 하늘에서 오는 소리를 들었다(행26:14). 오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뜻을 알리시는가? 성경, 이성, 양심의 소리, 섭리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죄들을 버릴 것, 그리스도를 신뢰할 것, 죽음을 예비할 것, 하나님

섬기는 데 매진할 것,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할 것

반즈의 목표: 사울의 회심을 근거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지 보이려 함, 사람들을

부르시는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함,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소의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자 스스로의 음성으로 나타났다.

하늘에 나타나서 그에게 보인 것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였다.

그분은 본인이 구원자 예수라고 하고 그를 부른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였다(행26:15-18)

과거에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셨다(히1:1)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개개인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1. 꿈이나 환상: 아브라함, 이삭, 2. 사무엘에게 하신 것처럼 음성을 통해 부르심으로써, 3. 아하스, 다윗, 히스기야에게 특별한 사자(대언자)를 보내신 것처럼, 4. 다니엘, 사가랴, 마리아에게 한 것처럼 천사, 5. 예레미야, 에스겔에게 한 것처럼 거부할 수 없는 내적 소리를 통해, 5.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함으로, 6. 혹은 밤모 섬의 요한처럼 계시를 보게 함으로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이 의심하지 못할 방법으로 사람들과 소통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의심하지 않고 그분을 따르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소통 방식을 택하지 않으신다.

비록 이런 방식이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능들을 마비시키거나 현존하는 질서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자주 생기지 않는다.

이런 것은 기적이다. 기적으로 모든 것을 하시면 질서 체계가 무너진다.

진리를 탐구하려면 이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식의 소통은 이성을 마비시킨다.

진리를 찾으려 하는 마음, 의지를 제거한다. 우리를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만든다. 종교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큰 원리들 배제하게 만든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문제를 멀리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상, 꿈, 천사 등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위대한 사람들에게서 희귀하게 일어난 것들을 매일 일어나는 것들로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시는 일곱 가지 방법

1.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담겨 있다. 모든 민족 개개인에게 특정한 뜻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지혜를 준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인종 누구에게나.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안내를 담고 있다(딤후3:16-17; 롬15:4).

2. 질서 있게 움직이는 합리적인 본성이 있다(이성). 많은 사람들이 시시하게 여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안에 엄청난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복음을 보라.

절대적인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불가능, 대신 속죄 마련, 믿음으로 받게 하신다. 그리고 은혜로 주신다.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이성적, 합리적

3. 양심, 양심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여 옳은 것은 택하고 그른 것은 버리게 하는 기능, 양심은 자연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 자체와 사람의 도덕적인 행위를 규제한다. 양심이 있기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계 보고할 책임을 지니고 있고 양심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소리를 감지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양심이 순수하고 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의무가 분명하게 드러나며 이때에는 어떤 것도 양심의 소리를 거부할 수 없다.

선하고 순수한 양심(딤후1:5; 3:9)은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졌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복음의 동기로 그 뜻에 복종하게 만든다. 사람이 이렇게 양심에 순종할 때 범법하지 않는다(행24:16). 선한 양심의 허락을 받는 것은 사람의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몸의 상처는 결코 양심의 고통과 비교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양심이 활동을 멈추고 자는 것 같아도 그것은 결코 죽지 않는 벌레처럼 결코 꺼지지 않는 불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을 영원토록 괴롭게 할 것이다.

4.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사건들, 섭리(providence), 미리 보고 준비하시는 것
참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가장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에 있다.

5. 복음의 외침 소리, 목사, 선교사, 교사들의 살아 있는 음성

6.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 예수님을 설명함
이런 일이 우리에게 지금도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다(히13:1-2).

7. 부드럽게 마음을 여시는 성령님의 영향: 우리가 죽는 날까지 문을 노크하신다.

총 일곱 가지: 말씀, 이성, 양심, 섭리, 설교, 사람들, 성령님

이런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알리신다.

우리의 반응: 그러면 우리는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행9:6), 즉 하나님의 뜻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

1. 죄들을 치울 것, 우리의 길과 방법을 치울 것

모든 범법,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목적, 이득, 기쁨, 명예

하나님의 백성 핍박, 불신, 세상을 따르는 것, 야망, 관능적인 것

하나님은 위의 7가지를 다 쓰셔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릴 것을 촉구하신다.

2. 다소의 사울이 만난 주님을 신뢰할 것

사울은 예수님 없이 자기 행위로 천국에 가려 하였다.

십자가 무시, 그분의 희생, 그분의 무덤, 그분의 부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 다 무시

한 마디로 그는 불신자였다. 죄인이었다.

죄인이란: 구원자 없이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 십자가와 부활을 무시하는 사람,

구원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 일곱 가지를 통해서 죄인을 부르신다.

3. 현 세상 이후의 다른 세상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사람들을 부르신다.

이 일곱 가지를 통해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엘리후의 말, 욥33:13-18)

4.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진리, 공의

다소의 사울을 부르신 이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라고

회심 이전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달란트를 허비하였다. 이후: 비로소 그것들을 쓰기 시작하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에게 주신 천부적인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 써야 한다.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데(빌1:20-21).

사람의 문제

1.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안 가려고 애쓴다. 주님의 말씀: 가시채를 차는 것(26:14)

2. 다소의 사울 마찬가지 그러나 그는 하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자기의 주인을 섬겼다(딤후4:1-8).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회개, 믿음, 다가오는 세상 대비, 유익한 삶을 살라, 모두가 죽는다.

모두 지금 영원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다소의 사울처럼 최선을 다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부응하며 살고 있는가?(행26:19-23)

아니면 말씀, 이성, 양심, 섭리, 설교, 사람들, 성령님 일곱 가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호소를 무시하고 있는가?

♫ 사도 바울 맥잡기: 바울의 아라비아 광야 체험

성경말씀: 갈1:15-18

지난 시간: 하나님은 말씀, 이성, 양심, 섭리, 설교, 사람들, 성령님 일곱 가지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다.

목적: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죄들을 치우고 거기에 순응하는가? 주님을 신뢰하는가?

오늘: 사람의 회심, 곧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일은 고독의 시간이다. 고독의 시간이 있는가? < : 영혼의 어두운 밤 >

광야에서의 사울

아라비아 광야, 기간: 3년으로 보는 견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다마스쿠스에 나타날 때까지
여하튼 그는 다마스쿠스에서 도망하여야 했다. 곧바로 돌아올 수 없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3년,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 회심 이후 삶에서 가장 명확하지 않은 부분
아라비아 사막은 엄청 넓은데 그는 어디로 갔을까? 왜 갔을까? 무슨 일을 했을까? 다른 사도들처럼

왜 곧바로 주의 일을 하지 않았을까? 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왜 이 기간이 공백으로 남아 있는가? 아마도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 모두 우리의 추측이다.

아라비아라는 말은 조금 모호하게 쓰였다. 서부 아시아의 국가. 이곳은 유대의 동남쪽에 있었으며 남북으로

2,300킬로미터, 동서로 1,900킬로미터로 뻗어 있었다. 이곳의 북쪽 경계는 시리아, 동쪽 경계는

페르시아 만과 유프라테스 강, 남쪽 경계는 아라비아 해, 서쪽 경계는 홍해와 팔레스타인이었다.

아라비아는 보통 아라비아 데제르타, 펠릭스, 페트라리아의 세 지역으로 구분된다. I. 아라비아 데제르

타(Arabia Deserta) 광활한 모래 더미로 이루어진 지역. 이곳에는 식물이 거의 없었고 이곳의

서쪽으로는 길르앗이,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으며 이 사막은 남쪽으로 길게 뻗어 있었다.

II. 아라비아 페트라리아(Arabia Petraea) 가나안 땅 남부 지역. 이 말은 '돌 많은 아라비아'라는

뜻이며 이 지역의 수도는 페트라이다. 바로 이 지역에 가데스바네아, 그랄, 브엘세바, 바란, 아랏,

드단, 시내 산 반도와 미디안 땅이 들어 있다. 이 지역은 다른 아라비아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역사적으

로는 매우 중요하다. 족장 율 역시 이 지역과 관련이 있고 모세는 호렙에서 불타는 가시덤불을 보았으며

엘리야는 조용한 가운데 들리는 작은 소리를 들었다. 바로 이 광대하고 무서운 광야에서 히브리 사람들

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였다.

III. 아라비아 펠릭스(Arabia Felix) 고대 아라비아 남서부와 남부의 비교적 비옥한 지역. 이곳은

오늘날의 예멘에 해당하는 곳으로 불모지인 아라비아 중부와 북부를 지칭하는 아라비아 데제르타

지역 또 로마 제국에 종속되어 있던 아라비아 북서부를 가리키는 아라비아 페트라리아 지역과 대조를

이루었다.

그의 목적: 그가 만난 예수님과 기독교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 조용히 기도와 묵상 필요

은 세상으로 이것을 가져가야 할 책무, 쉬운 일이 아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다소의 사울의 아라비아 광야 3년: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dark night of the soul), 청교도들이 즐겨 사용한 말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대개 고난과 고독의 시간, 그러나 끝에는 행복의 시간

성경의 인물들: 많은 경우 공적 사역을 하기 전에 심한 어려움, 눈물의 시간

모세의 경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 아라비아

다윗의 고통의 시간: 베개에 눈물을 흘리던 시간(시56:1, 8)

엘리야 역시 광야 생활, 시내 산, 아라비아

예레미야: 백성을 향해 일생 동안 눈물을 흘림

마르티 루터의 고뇌의 시간

침례자 요한 역시 유대 광야, 영이 강하게 되었다.

우리 주님도 침례 이후 공생애 시작 전에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에 들어가셨다(마4:1).

그래서 이 시간을 광야의 시간이라고 한다. 고독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

사역의 중간에도 찾아온다: 많은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우울증
심지어 스펀전 같은 위대한 목사에게도, 파이프에게도
어쩌면 욥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
사도 바울: 고후4:7-13

아라비아 결론

아마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 3년 기간에 하나님과의 대화, 자신의 일 계획, 무장
사실 다른 제자들은 3년 이상 주님의 지도를 받음
바울도 이런 기간 동안 주님의 공부했을 것이다.
그는 분명히 사도를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스스로 학문을 쌓고 기도, 묵상, 하나님과의 교제
그는 지금까지 오직 바리새파 교육, 이제는 새로운 길, 공부하고 준비하는 기간
이제 온 세상에서 배척을 받는 그리스도 선포, 이방인들의 사도

반즈의 말: 회심 이후 공적인 사역으로 가기 전의 이 준비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

1.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인가?
2. 우리의 일생을 가장 값지게 쓸 수 있는 것인가? 인생은 짧다.
3. 시험과 유혹이 가장 적은 길인가?
4.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바울은 유대교 랍비가 되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
그 이후에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 생활, 지금 같으면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원 훈련,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읽고 이해하여야 한다. 조직 신학,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그리 길지 않다.
그럼에도 잘 준비해야 한다.
5. 질이 좋은 사역을 해서 영원히 족적을 남겨야 한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역을 하는 도중에

깊은 영성은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형성된다, 김순성 교수

- 목회자들이여, 내면의 중심으로 들어가라 -

열심 있는 기도생활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영적 메마름과 공허함을 느낀 적이 없는가?
이전에 경험했던 기도의 즐거움이 사라지면서 마음의 혼란을 경험한 적이 없는가?
그로 인해 걱정과 조바심으로 번민한 적이 없는가?

목회자와 평신도를 막론하고 신자의 삶의 최상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 되는 것이다.
우리의 전인격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추구했다(빌3:7-14). 그의 모든 사역도 삶도 궁극적으로는 이 한 가지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보게 된다.

어떻게 하면 나의 전존재(마음, 뜻, 소원, 비전)가 주님(마음, 뜻, 소원, 비전)과 하나가 될 것인가?
깊은 영성이란 다름 아닌 주님과의 이 신비한 연합을 보다 깊게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전인격, 전 사역, 전 생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목회자란 누구보다도 주님과 하나 됨을 깊이 경험한 자라야 하며, 목회란 성도들에게 이 깊은 영성에
이르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신비한 연합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가? 본질적으로 어두움인 인간이 빛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며, 온갖 이기심, 탐욕, 거짓, 불의와 부정으로 더럽혀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통해서이다. 그 감각을
통해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인식하고 영에 속한 것들을 가슴으로 느끼며 맛보고 즐거워한다.
처음 신앙에 입문하게 되면 누구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지각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감각이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인간의 감각적 인식능력에 한계가 있고 부패성과 이기심의 때가 묻어 있다는 것이다.

어린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엄마 품에서 나오는 달콤한 젖을 통해서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세계도 구도의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달고 맛난 영의 젖으로 당신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영적생활에 재미와 즐거움을 누리게 한다. 엄밀히 말해서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맛 때문에 영적인 일을 좋아하게 된다. 그 달콤한 맛 때문에 기도에 열심을 내고 교회봉사와 사역에 충성하기도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열심과 충성 때문에 심령 속에 자만과 교만의 영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 충성과 열심이 도리어 교회 안에 문제를 가져온다. 목회 사역도 예외가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의 열매를 더 사랑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 때문에 위로받고 그 때문에 기도하고 열심내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가?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한다. 이기심, 탐욕, 교만으로 얼룩진 불완전한 영적 감각에 기초한 하나님 사랑, 열심과 충성은 하나님 앞에는 어두움에 지나지 않는다. 어둠을 둘러싼 영혼이 먼저 이 어둠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티 없이 맑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 없다. 빛과 어두움은 서로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때 묻고 불순물이 끼여 있는 영적감각을 정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하신다. 이 어두움은 죄로부터 오는 어두움이 아니다. 우리 영혼을 깨끗케 하고 강하게 하며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시는 '찬란한 어두움'이다. 어두운 밤은 우리 영혼이 매마름과 황량함을 경험하는 때이다. 지금까지 나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던 모든 감각적인 즐거움은 사라진다. 달콤한 젖에만 의지하여 엄마의 사랑을 느끼려는 갓난아이를 품에서 내려놓고 제 발로 걷게 하듯, 하나님은 그를 찾는 데 있어 감각에 의존했던 자리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신다. 어두운 밤은 내 뜻, 내 생각이 전혀 통하지 않는 실패의 밤이요, 내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고통의 밤이다. 이 밤에 하나님은 모든 위로, 심지어 이해까지도 박탈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시간만 낭비할 뿐 영적으로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느껴진다.

하지만 어두운 밤은 내 영혼의 무게중심이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은총의 밤이요, 내 영이 순수함과 정결에 이르는 축복의 밤이다. 이 매마른 밤에 하나님의 빛에 조명된 나의 별거벗은 영적 실상을 보게 되며, 맑은 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된다. 올바른 자아인식과 함께 참된 하나님 인식이 이 밤에 가능해지는 것이다.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을 노래했지만 실은 자기 입맛에 만족하며 그 맛에 집착해 왔던 거짓된 자아 그리고 하나님의 빛 앞에서 스스로의 무능과 비참을 비로소 보게 된다. 여기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덕이 시작되며 참된 이웃사랑이 시작된다. 인간의 개념, 사색, 추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된다.

5.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기다리라.

당신의 모든 생각을 한 곳으로 모으고 하나님의 얼굴을 고요히 바라보라. 복음송 <괴로우려 때 주님의 얼굴보라>를 불러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때가 이르면 매마른 기도의 나무에 새싹이 돋고 잎이 피고 열매를 수확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바울의 아라비아 광야 3년의 결과: 빌립보서의 경험(빌3:4-17)

머리 사도 바울 맥잡기: 바울의 멘토 바나바와 바울의 안디옥 사역

성경말씀: 행9:23-30

지난 시간: 바울의 아라비아 광야 체험, 3년, 영혼의 어두운 밤, 하나님을 아는 시간, 삶의 어느 시점
다마스쿠스 회심, 곧바로 예수님 선포(10:19-22). 사람들 당황함, 결국 아라비아 사막
그 뒤에 그는 다시 다마스쿠스로 갔다. 바구니를 타고 가는 수모(9:23-25)

고후11장, 바울의 고통, 역경(23-28), 그 뒤 다시 바구니 이야기(32-33).

아레다 왕, BC9년부터 AD40년까지 나바티아 왕국의 왕, 그의 딸 헤롯 안디바의 아내

그런데 안디바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 침례자 요한의 반대, 참수형

이혼 소식을 접하고 안디바의 영토 공격 군대를 물리침, 그리고는 시리아까지 침범하여 다마스쿠스

장악 통치, 이때에 다소의 사울 회심, 그리고 도망해서 예루살렘으로 감

바울의 문제(26절),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 사울의 회심 소식 들음, 그러나 그는 편파적인 바리새인
의심하고 있음, 당연하다: 하나님을 그렇게 심하게 대적하던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회심 후 다마스쿠스의 사울의 확실한 증거(9:22),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갔으면 성도들 흥분

어쩌면 광야에서의 3년으로 인해 더욱더 의심을 받게 됨.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무엇을 했는가?

왜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곧바로 사라졌는가? 3년 동안 안 보임, 믿음을 버렸는가?

바나바의 등장

그런데 이때에 중요 인물이 등장한다(27). 그를 보증함,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받아들인다.

예루살렘에서의 위험(29-30)

그리스말하는 사람들: 유대인 개종자 혹은 유대인으로 주로 그리스말하는 사람들

결국 그를 죽이려는 시도, 그래서 형제들이 의논해서 그를 다소로 보낸다.

다소에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어린시절 교육받던 곳, 친구들이 있는 곳, 가족들이 있는 곳, 이교도 철학자들이 있는 곳

아마도 그는 자기 고향에서 역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절 역시 그에게는 무명의 시기,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음

그의 천부적 재능은 빛을 내지 못했다. 많은 교육과 학식, 회시의 은혜, 아라비아 체험 등
사실 그는 다소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전 세상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드디어 은혜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왔다. 안디옥에서의 사역이 시작됨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다.

우리의 안디옥

시리아의 수도, 동쪽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도시, 온 세상에서 로마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소)

복음이 점점 확산되기 시작함(9:31),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러는 가운데 드디어 가이사라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처음으로 구원을 받음(10-11), 약 10년 기간

그러면서 드디어 복음이 안디옥으로 감(11:19-21)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볼 때 가장 중요한 곳,

그래서 그들은 바나바를 거기로 보냄(11:22)

수확할 밭이 너무 넓었으므로 도움 필요,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감(11:25)

바나바의 판단에 이런 일을 감당하기에는 다소의 사울이 아니면 안 되었다.

그래서 직접 본인이 다소로 감, 열심히 사역함 그리스도인(11:26)

처음 10년 동안의 일 요약

1. 초기 기독교의 파급: 빠르지 않았다.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까지 가는데 약 10년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도 초점은 유대인 회당, 이방인이 아님, 가나안 땅, 언약 백성 중심
행11장: 베드로의 고넬료 회심 유대인들 분개, 베드로의 설명 이후에 깨달음(17-18)
2. 안디옥 사역을 보자. 거기에서 복음이 권능 있게 선포되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것은 마치 오순절

날 예루살렘 부흥과 비슷하였다. 사실 핍박 때문에 흩어진 제자들이 멀리 갔지만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였다(11:19). 키프로스과 구레네 사람들이 그리스말하는 자들에게 선포(20). 많은 변화

3. 교회 입장에서 보면 큰 변화. 팔레스타인 밖으로 전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출신의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한다.

태생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닌 자들에게 전해야 한다.

그 결과 복음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제자들이 드디어 느끼기 시작함: 유대인, 가나안을 벗어나야 한다. 모든 대륙의 모든 사람에게 가야 한다. 바로 이때에 기독교의 본질이 정립됨: 유대교 유대인 밖으로, 온 세상으로(행1:8)

그리스도인 등장

그 결과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함(11:26)

즉 기독교의 본질이 정립된 이후 그들의 명칭이 주어짐

그리스도인: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나사렛 종파 사람들이라고 불렀다(행24:5).

제자들의 다수 갈릴리, 거기의 나사렛,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요1:46) 무시하는 말

또한 유대인들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를 수 없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이런 좋은 호칭을 자기들이 경멸하는 대상에게 붙일 수는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을 형제, 제자, 믿는 자, 성도라고 불렀다.

그리스도인(행11:26; 26:28; 벧전4:16), 후자 2개를 보면 외부 사람들이 그렇게 부름 아마도 이방인들이 그들을 그렇게 불렀을 것이다.

이들이 보기에 그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달랐다. 초기 기독교 시대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짐, 그러나 자세히 보니 완전히 다름, 그래서 새 이름 필요

그리스도인: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부름, 이들을 보니 대화 중에 그리스도가 많이 언급됨 편지에도 많이 나옴, 그들의 우두머리

이들의 주장: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묻히고 부활했다. 십자가는 치욕의 표현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모욕의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사용

즉 조롱과 경멸의 호칭이다. 그 당시 안디옥 사람들, 사람들을 편잔주기 위해 이상한 이름 발명하곤 하였다는 이야기도 있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얼마나 적합한가? 모든 시대에 모든 곳에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 그 이후 온 세상 모든 곳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호칭 유대교와 관련된 호칭이 아니다. 지역적이지 않다. 어떤 민족 중심이 아니다. 지파/종족/언어/피부색/법/습관,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 대륙, 언어 초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 바울과 안디옥

1. 안디옥은 민족들 가운데 으뜸가는 도시

바빌론, 니스웨 명성 잃음, 콘스탄티노플 등장하지 않음, 파리, 런던 촌

그 당시 세상: 로마,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아테네, 최고 도시 로마(예루살렘에서 땀), 누군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가장 큰 도시에서 파급하려 할 것이다. 안디옥은 위치(예루살렘에서), 부, 상업, 접근성, 다른 세상과의 교류, 인구, 모든 면에서 적합하였다. 그 도시의 다른 이름: '하나님의 섭리'

로마 이전에 그리스, 알렉산더 대제, 사후 왕국 분열, 북쪽 시리아(셀류시드), 남쪽 이집트(프톨레미) 북쪽 안디옥, 남쪽 알렉산드리아, 헬레니즘 문화, 유대인들이 많음, 로마 총독 거주

2. 그런데 기독교는 안디옥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온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는 유대교, 그리스 문화를 잘 아는 사람 필요, 다소의 사울이 가장 적합하였다.

그의 재능, 열정, 교육, 키프로스, 몰타, 로마,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3. 바나바의 안디옥 초청이 없었다면 바울의 모든 재능 교육은 빛을 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다.

바나바는 누구인가?

그는 키프로스 출신, 그리스 말하는 유대인 부모, 이름은 요세, 주님의 재림 고대, 물질 공동 소유(행

4:36-37), 위로의 아들, 기존 성경 권위자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음, 열정적인 사람

특징: 행11:23, 24,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한다. 선한 사람,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결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람, 도시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

우리도 올바른 신앙 교회, 올바른 성경

시간이 걸린다. 바울과 같은 사람 필요. 그러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میم 사도 바울 맥잡기: 바울과 바나바 선교 여행 파송의 역사적 의미

성경말씀: 행13:1-3

행1:8, 10년 이상의 시간, 드디어 복음이 팔레스타인 밖으로, 중심지 안디옥(행11:22), 바나바, 다소의 사울을 데려옴(행11:24),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 호칭(11:26), 경멸과 조소의 대상, 말씀이 흥왕함 이르는 동안 유대와 예루살렘에 기근, 구호금, 바울과 바나바 파송(행11:27-30)

12장은 헤롯 왕(1)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죽는 것을 보여 줌

여기의 헤롯은 아그립바 1세,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대왕의 아들들: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BC 7년경에 그가 죽인 아들 아리스토틀러스, 이 아그립바는 아리스토틀러스의 아들, 행26장의 아그립바 (2세)의 아버지, 그의 영토는 지금의 이스라엘 전체와 비슷함, AD41-44 유대 통치 요한의 형제 야고보 순교(12:1-3)

베드로도 죽이려 하였으나 그는 천사에 의해 구출됨(5-19)

AD 44년경 가이사라에서 연설(12:19, 스포츠 게임 장소), 하나님 대신 영광 차지하다가 죽음 (22-23), 결론: 즉 유대인 사도들 사역은 점점 힘을 잃고 이방인 사도들 사역은 힘을 얻음

12:24-25,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으로 돌아옴

행1:8을 이루기 위하여 드디어 이방인 선교 사역이 시작됨, 터닝 포인트

바울은 원래 이방인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음(9:15; 22:17-21)

이방인들의 사도라는 데 대한 자부심(롬11:13; 엡3:8)

이제 예수님 승천 후 약 14년이 지났고 드디어 유대인 사도들도 예수님의 대위임의 말씀을 점차 이해하기 시작함(막16:15).

즉 민족, 언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든 복음을 보내야 한다. 선교사 필요(롬10:14-15)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인 선교 파송은 그들 각자의 삶에 큰 전환점, 교회사에서도 대단히 중요함 기독교가 무언인지를 잘 보여 주는 일, 세계 문명을 바꾸는 일 시작

당시 세상, 우상과 무지(살전1:9-10)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구상, 완전히 새로운 것, 신선한 것,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일 시작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고 남녀노소 구분 없는 때가 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갈3:27-28; 골 3:11)

장애물

1. 민족: 서로 다른 사람들, 경계에 의해 전혀 다른 언어, 문화, 관습, 교육, 관념
구약 시대 유대인들: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바바리안들(고전1:21-23)
2. 사회의 신분 계급 제도: 카스트 제도, 빈부, 유식 무식, 자유인과 종, 귀족과 평민
3. 인종, 피부 특 백인이냐, 유색 인종이냐? 고대로부터 문제
4. 종교, 모든 나라는 섬기는 신, 그 신이 강하면 나라가 강하다. 전쟁에서 이긴다.

어떻게 극복하는가?

1. 특권층이 자기 것을 버리고 자기를 낮춤으로써, 유대인들 이방인 개돼지 취급
그러나 베드로의 환상: 예수님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라고 하심, 차별이 없다.
2. 수용하는 사람들 편에서
새로운 종교는 열등한 것,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겠느냐?(행17:18-21, 아테네)
그러니 로마 에베소, 안디옥 등에서는 얼마나 어려웠을까?
3.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
유대인이 없는 데가 없었다. 나쁜 평가: 유대교, 편협하다는 인식, 증오의 대상
과학, 철학, 문화가, 예술이 없는 자들
이런 상태에서 유대에서 나온 사람들이 로마 등에 가서 유대인들의 신을 전한다고 하면 어떨까?
그 신이 창조자 하나님, 인간의 타락, 유대인인 예수님만이 구원자,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돈 많은 부자 주인 종에게서 복음을 들어야 함, 왕은 신하에게서
 유식한 자 무식한 자에게서,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서, 제사장은 일반 신도에게서
 공부 많이 한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등이 피지 사람, 에스키모 인디안 원주민, 형제자매
 그것도 십자가 복음,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가장 무서운 형틀
 그리고 구원받으면 다 형제/자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대다수 선교사들,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교육, 병원, 법, 상식을 줌 훨씬 더 용이하다
복음의 진리들은 이것들을 다 무너뜨렸다.

1. 인류는 한 피에서 나왔다. 하나님 앞에서 한 부모를 가진 한 종족이다(행17:26).
 기독교는 어떤 종교도 주지 않은 인간의 권리, 인간의 자유를 보여 주고 줌, 영혼의 자유
 이것들이 없어서 과거의 여러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폭정이 이루어짐
 그러나 기독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한 존재
 기독교는 인류의 창조자 하나님, 그분 앞에서 모두가 평등함을 가르침
2. 성경은 아담과 이브로부터 모든 사람이 나음을 가르침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모든 민족 나옴(창10:1, 31, 행17:26)
 한 부모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여(롬3:23) 누구도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결과 모두가 다 죽는다. 예외가 없다. 다른 종교는 죽는 이유를 못 줌
 따라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함
 여기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의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그분의 타이틀 사람의 아들(영국인, 에티오피아인 한국인 아니다)
3.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심(요일2:1-2)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충분하다. 남녀노소,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법으로 속죄를 얻는다.
4. 복음이 주는 소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사람의 불멸 모두에게 적용된다. 천국 지옥 마찬가지로
 사람의 어떤 특권이나 지위로 인해 천국과 지옥의 등급이 변하지 않는다.
5. 동일한 구원 방법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일함, 일단 동일한 바닥에서 시작한다. 죄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선물로 주어진다. 무식 유식 상관없다(엡2:8-10).
6. 하나님은 인간에게 공평하게 모든 자산을 주셨다: 태양, 바다, 바람, 물, 공기
기독교 선교의 의미

이런 진리들의 특징은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주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이처럼 기독교 선교가들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인종 불문 모든 민족에게 동일한 복음 선포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처음 나타난 일이다.

인류의 창조 이후 4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드디어 이런 진리가 선포됨
 그 결과 폭군들의 폭정이 무너지고 드디어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세우는 시스템 확립
 그런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AD90년경부터 이미 제사장 체제 복원(계2:6의 니골라당)

AD 313년 밀라노 칙령, 기독교 공인, 이교도들의 문화 기독교 혼합

이후 로마 천주교 형성됨, 약 1000년의 중세 암흑시대

1517년 루터의 종교 개혁 그 이후 근대, 소유권, 자유, 인권

미국의 독립 운동, 독립 전쟁, 독립 헌법, 근대 시민 국가의 완성

그러나 여전히 천주교, 이슬람, 불교, 공산주의 등에 매여 한다.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 아마 1억 정도, 지금 우리는 미디어 선교 매진, 마지막을 향해서

따 사도 바울 맥잡기: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핵심 포인트
성경말씀: 행13:1-12

행1:8, 10년 이상의 시간, 드디어 복음이 팔레스타인 밖으로, 중심지 시리아의 안디옥,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명령하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구분해라(13:2). 드디어 교회가 안수하고 내보냄(파송), 지난 시간 그 당시 선교 여행의 중요성, 어려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시작됨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구원자, 동일한 복음, 동일한 구원, 남녀노소 빈부격차 인종 상관 없음
안디옥 교회에 여러 리더들 중 바나바와 바울 선택

예수님의 복음 선포: 한적한 갈릴리 호수, 시골 세팅

그러나 사도행전의 복음 선포는 도시 세팅, 즉 15년 정도 지난 후 농촌에서 도시로 바뀜
사도행전에는 약 40개의 도시들, 안디옥에서 그 당시 전 세상으로 복음을 가져감

바울의 말: 롬15:19

13-14장에는 1차 선교 여행, 6-7개의 도시, 잊지 말라: 기록자는 누가이다. < >

1. 안디옥에서의 중요 결정(1-5)

사도행전은 사실 성령 행전이다. 성령님의 여러 사역: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선교 사역
5명의 주요 인물: 바나바, 니게르 시므온 아프리카 출신, 구레네의 루기오, 마나엔: 사분 영주 헤롯 안디바의 친구, 바울, 이들은 대언자와 교사로 섬김(1), 성경 미완성, 아직 대언이 있었다.

대언은 주로 설교, 교사는 교리를 가르침

바울은 이미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음(행9:15; 22:17-21), 바나바는 그의 동역자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데리고 감(12:12; 13:5), 요한 마가(John Mark), 아마도 베드로의 인도로
구원, 내 아들 마가(벧전5:13), 1차 선교 여행 지도 설명

2. 바보(13:6-12)

키프로스, 살라미, 그리고 바보에 도착함, 키프로스는 바나바의 고향, 바보는 키프로스의 수도, 서기오
바울 거주(분별 slTsms 사람), 거짓 대언자 바예수(6)

엘루마의 뜻은 마법사(6), 예수님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마13), 꼭 가라지가 있다.

바울의 파악: 엘루마는 마귀의 자식(13:10; 요8:44), 눈을 어둡게 함

서기오 바울에게 기적을 보여 주며 참 복음 선포(히2:4), 구원받음(12)

13:9의 놀라운 변화, 사울이 처음 바울로 표기됨, 아마 그의 이름은 사울 바울로스(유대 로마식 이름)

3. 버가(13:13)

밤빌리아의 버가, 마가는 여기서 돌아감, 무슨 이유인지 모른다. 고향 생각, 바울의 주도권, 유대인
마가는 이방인들의 구원 불편함, 새로운 지역에 대한 위협, 불안감, 여하튼 바울은 2차 여행을 가면서
마가를 데려가지 않음(행15:36), 바나바와 큰 다툼

그러나 후에 마가는 회개하고 바울을 돕는 사람이 됨(딤후4:11)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된다.

4. 비시디아 안디옥(행13:14-52)

약 160킬로미터, 1000미터 고지, 그의 선교 여행지는 전략적 요충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
대개 유대인 회당에서 시작함(5, 14 등)

여기에는 그의 사도행전에서의 처음 설교가 기록됨

16-25절: 이스라엘 역사 회고(이집트 탈출, 가나안 생활,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23), 침례자 요한(24), 그는 예수님의 전령(25)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26-37: 복음 선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지도자들의 메시아 거부, 십자가 처형, 구약을 읽었는데 이해하지 못함(27)

십자가 처형은 이미 예언됨, 부활과 함께(시편 2편, 35절)

핵심(30): 하나님이 그분을 일으키셨다.

복음 선포: 구원의 말씀(26), 기쁜 소식(32)

회당에서 선포하므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 성경 인용 시2:7 그리스도의 부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사55:3), 원래는 삼하7:12-17, 다윗 언약, 영존하는 언약, 메시아 언약, 썩음을 보지 않는다(시16:10)

적용(38-52), 복된 소식을 모두에게 선포(32), 개인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그물을 던진 다음 거두어서 고기를 건져야 한다.

유대인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다.

칭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적 행위, 이것은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와 자격을 말한다.

유대인들의 개념(대하6:22-23)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롬4:1-8).

율법의 역할: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보여 주며 정죄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의 죄들 용서, 우리 계좌로 그리스도의 의 부여
이런 복음을 들어 본 적이 없다.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었다.

바울의 경고(41, 합1:5)

하박국 당시의 믿지 못할 일: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신다.

아무도 못 믿음, 그런데 이번에는 만대,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이방인 구원

그 결과: 1. 이방인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또 전해 달라(42), 유대인과 개종자들 가운데 신앙이 생김(43)

그런데 이방인들이 나가서 큰일을 함, 수많은 사람들(44),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45)

바울의 마지막 말(46), 사49:6 인용,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에게로 나감

48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미 정해진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예지 예정을 통해(벧전1:1-2)

그런데 49절은 전도와 선교를 사람 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롬10:14-15

“나는 예정되었나요?” 물을 필요가 없다. “대개 이미 정해진 것으로 착각”,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면 예정된 것이다. 화가 난 유대인들의 선동, 핍박(50), 기쁨에 차서 이고니움으로 감(51-52)

5. 이고니움(행14:1-7)

역시 회당(1)

유대인들의 이방인 선동(2), 기적과 이적으로 말씀에 증거를 주심(3; 히2:4)

찬성과 반대파로 나뉨(4-5), 루스드라와 디베로 피신함

6. 루스드라(행14:8-20)

루스드라 갈라디아의 도시, 이고니움에서 약 30킬로미터 남서쪽

바울은 세 번 루스드라 방문, 2차 여행에서 디모데(행16:1-5), 3차 여행(행18:23)

먼저 앓은뱅이를 고침(8-10)

사람들의 반응(11-13), 신들이 내려왔다(11). 그리스 문화, 하나님의 아들들(창6), 주피터(바나바, 제우스), 신들의 우두머리, 머큐리(바울, 헤르메스), 신들의 전령, 희생물을 드리려 함(13), 이것이 그 당시의 무지한 백성들 상황

사도들의 반응(15), 목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과거에는 하나님이 버림받은 상태로 내버려둠(롬1:28), 그러면서도 은혜를 베풀

바울에게 돌을 던져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함, 조금 전에는 머큐리, 이제는 범죄자, 대중은 늘 선동에 약하다. 루스드라의 새 성도들, 도망가지 않고 그를 지킴, 그가 일어남, 아마도 디모데는 이것을 보고 회심(딤후3:10)

7. 디베 등(행14:20-26)

디베, 루스드라, 이고니움, 비시디아 안디옥

가면서 한 일(22), 7년 환난 통과가 아니다.(*), 밤빌리아의 벵가, 앓달리아, 안디옥

10 사도 바울 맥잡기: 바울의 역사적 예루살렘 회의: 유대교 완전 탈출 독립 선언
성경말씀: 행14:23-15:21

지난 주: 바울과 바나바의 역사적인 1차 선교 여행, 온 세상을 바꿈

안디옥, 실루기아, 키프로스의 살라미, 바보, (앗달리아), 버가, 안디옥, 이고니움, 루스드라, 데베
밤빌리아와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 현상: 유대인들의 반대, 이방인들의 환대

바울의 고난: 루스드라에서 앓은뱅이 고침,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온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됨, 선포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오직 이분을 통한 칭의 선포(은혜로 믿음으로)

14:26-28, 안디옥 교회에 믿음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하고(14:27) 오랫동안 안디옥에 머물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김, 유대주의자들의 침입, 복음의 방해꾼들: 딱 막힌 사람들

이것은 AD 50년경, 이것이 오히려 유대교로부터 크리스천이 독립하는 기회가 되고 말

안디옥 교회의 분쟁(1-5)

유대에서 온 자들의 주장(1):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소속, 그러나 거기서 공식 파견된 것은 아니다(15:24).

바리새인들과 연관(15:4), 유대주의자들은 성도들의 자유를 빼앗으려 하는 자들(갈2:4)

예루살렘 교회: 여전히 기존 틀을 벗지 못함, 은혜와 율법의 혼합

원래 유대인들은 율법 존중, 아직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등이 기록되지 않은 시기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있음(행6:7), 구약 율법 실천하는 자들(행21:20-26)

이 시기는 변천기, 시간이 걸린다. 과거를 포기하는 것이 어렵다.

율법주의자들의 문제: 1. 은혜와 율법 혼합, 새 포도즙을 현 부대에 부으려 한다.

2.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놓은 생명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한다.

3. 예수님은 유대인 이방인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치우셨는데 이것을 다시 쌓으려고 한다(엡
2:14-16). 4. 자기들도 지기 어려운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려 한다(행15:10).

이들의 주장: 이방인은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그 뒤에 구원이 있다. 즉 모세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

1. 다른 복음(갈1:6-9)

지금도 더러 있다.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우리 그룹에만 있다. 우리 식으로만...”

구원은 교회나 그룹이나 목사에게 있지 않다.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2. 복음 선교 문제: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 무의미,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였다. 안디옥 교인들은 당황하였다(15:24), 이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
가 세운 교회들에도 악영향

3. 갈2:2,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예루살렘 리더들에게 올라감, 안디옥 교회 동의(15:2),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이지만 모든 교회는 자치적으로 운영된다.

이방인 옹호 발언(6-18)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이 올라감(2)

약 4차례의 회의: 1. 공적 환영(4), 2. 바울과 주요 리더들의 사적 만남(갈2:2), 3.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듣는 공적 모임(15:5-6), 4. 공개 토론(6)

공개 토론에는 4명이 나서서 하나님이 여신 열린 문을 사람이 막지 말 것을 말함

1. 사도 베드로(6-11):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하신 4가지 일 알림

1.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심(15:7), 원래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역자(행2 등), 그 뒤 사마리아 사람들(행8:14-17), 그 뒤 이방인 고넬료(10), 유대인들의
비난, 베드로의 해명(11), 이방인 고넬료는 율법 준수가 아니라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음(7)

2. 하나님께서 거듭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을 주심(15:8),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심, 이들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성령님 수여 불가능

3. 하나님께서 이방인 유대인 구분을 없애심(9, 11),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규정 철폐(롬3:9, 22;

10:9-13),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처럼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11).

4. 이방인들에게서 명예를 치워야 한다(10). 율법은 명예이다. 속박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명예를 치우셨다(갈5:1). 율법은 사람의 마음을 정화할 수 없다. 죄를 보여 줄 뿐이다. 하나님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아들을 통해 하셨다(롬8:1-4).
2.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 보고(단 한 절 12), 말씀에 신뢰를 주시려고 기적들을 행한 것 강조(히 2:2-4; 막16:20), 서기오 바울과 박수 엘루파, 루스드라의 앓은뱅이 고침,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가 살아남 등
3. 교회의 수장 야고보의 결론(13-18): 예수님의 동생, 아마도 야고보서 저자, 부활 이후 신자가 됨
 1. 베드로의 말에 동의함(14-15),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택한 백성이라고 함, 지금 하나님은 이방인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라는 한 백성을 불러내신다.
유대주의자들의 문제: 어떻게 이방인이 유대인과 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들은 이스라엘의 과거 영광(모세)과 미래 영광(왕국)을 믿었다(사11-12, 35, 60). 그런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여기에 참여하는가?
지금 우리는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교회라는 신비의 기간이 있다.
초림과 재림 산봉우리 사이의 계곡(엡2-3장, 롬9-11장)
지금 시대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구원받으면 한 교회(갈3:28)
교회는 신비, 그러나 교회가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미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2. 대언자들의 말도 여기에 동의한다(암9:11-12).
베드로, 바울, 바나바가 말한 것이 이 말씀의 성취가 아니다.
다만 아모스의 말씀은 그들의 증언과 일치한다.

판결(19-35)

- 성령님과 교회의 모든 리더들(28, 22)의 판결: 1. 구원에 대한 교리, 2. 성화에 대한 교리
1. 구원 교리: 이미 살펴본 대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엡2:8-10), 한 복음, 한 교회, 한 프로그램
구원 교리에는 수반되는 의무가 있다(약2:14-26). 구원의 삶(행위)이 나와야 한다.
 2. 성화 교리: 이방인들은 세 가지 금지: 우상과 음행 그리고 피 먹는 것(20)
음식 문제는 어느 정도 중요함, 초기 그리스도인들 애찬, 여기서 피를 먹으면 유대인들 상처
지금은 어떤가? 한국은 선지 해장국 등, 나의 견해 문제없다(딤후4:3), 양심의 자유 문제
 3. 율법주의자들 수용, 이방인들 수용
 4.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율법에서 벗어남 확증, 영원한 독립 선언
 5. 그 결과: 1. 교회의 일치, 2.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단일한 증거 제시, 3. 이방인 교회에 기쁨(30-31),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실라가 올라감,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모든 교회들에 전달함

무엇을 배우는가?

문제와 분열이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긍정적 변화를 이루려면 서로 문제를 공유하고 허심탄회하게 의논하는 일 필요
많은 경우 교회는 교리가 아니라 실행 문제로 분열된다.

사랑의 타협이 필요할 때가 있다.

항상 이 생각 “우리의 결정이 밖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어떻게 단합된 메시지를 줄 것인가?”

영혼의 자유 강조: 그러나 이것이 방종이 되면 안 된다.

성도들 간의 말다툼, 너무 유치한 경우도 있다. 다른 미성숙자에게 어떻게 비칠까? 생각해야 한다.
자기 자랑, 목사 승배, 자기 교회 우수성 자랑

11 사도 바울 맥잡기: 바울의 2차 선교 여행과 유럽 선교 시작의 역사적 의미
성경말씀: 행15:36-16:1-15

지난 시간: 바울과 바나바의 역사적인 예루살렘 회의, 크리스천의 유대교 탈출, 영원한 독립 선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것은 속박이다. 멍에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다른 복음

예루살렘 교회의 판결: 안디옥 교회의 기쁨,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판결문을 모든 교회에 보내야 한다.

바울과 바나바의 분리(15:36-41)

바울의 제안(15:36): 열린 문이 있으면 얼마든지, 언제라도 가겠다. 이방인들의 사도

바나바의 결심(37): 마가는 자기의 생질,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바울의 반대(38, 벵가에서 이탈 행13:13), 마가는 너무 약하다. 안 된다.

두 사람의 다툼(39), 바나바는 마가와 키프로스도 다시는 등장하지 않음, 바울은 실라와 함께 시리아와 길리기아 교회들을 굳건하게 함, 두 명의 헌신된 사람들의 다툼, 둘 다 옳은 데도 있고 옳지 않은 데도 있다. 후에 마가는 신실함을 보였고 바울은 그를 칭찬함(골4:10; 딤후4:11; 몬23-24). 하나님의 사람들도 논쟁, 갈라짐, 이것은 현실의 문제, 교회도 이해해야 한다.

바나바: 사람이 먼저다. 바울: 일이 먼저다. 둘 다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바울의 선택: 실라, 그는 대언자(행15:22, 32), 실라는 사울의 그리스 식 이름, 데살로니가전후서의 공동 저자(1:1), 베드로전서의 필서 비서(벵전5:12, 실루아노), 역시 로마 시민(행16:37)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없다. 두 팀이 되었으므로.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일은 그대로 진행된다.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들만 쓰시려고 하면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신다. 우리의 불완전함, 연약함으로 인해 늘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고후3:5).

2차 선교 여행 개관

시작은 15:40-41, AD 49년 늦가을, 시리아와 길리기아, 바울의 고향 다소, 갈라디아 지역의 더베, 루스드라(디모데),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사람의 꿈, 유럽으로 넘어가 빌립보(16), 데살로니가(17:1-9), 베레아(17:10-15), 아테네(17:16-34), 고린도(18:1-17, 1년 6개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과 함께 에베소, 홀로 가이사랴, 안디옥 귀환(17:18-22), AD 52년까지 약 2년 반-3년

새로운 사역자 디모데(16:1-5)

바울가 실라, 동쪽에서부터 방문 시작, 먼저 길리기아의 다소(나오지는 않았지만), 더베, 그 뒤 루스드라, 예루살렘 교회의 판결 전달, 성도들이 늘어남

루스드라에서 심히 기쁜 일이 생김, 마가 대신 디모데 선택, 아마도 1차 선교 여행 때 회심, 내 아들(고전 4:17; 딤후1:2).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딤후1:5, 유니게와 로이스).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아마도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일 등 목격함(행14:19-20; 딤후3:10-11),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선호한 일꾼(빌2:19-23)

그는 교회들에서 좋은 평판(딤후3:7), 바울에 의해 선교 팀 합류(딤후4:14; 딤후1:6)

그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줌, 예루살렘 판결문과 다름,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 구원 받는 데 할례는 아무 상관없다.

사실 바울은 디도의 경우 할례를 행하지 않음(갈2:1-5)

예루살렘 회의의 핵심 논쟁은 복음의 진리 문제, 섬기는 일에 적합한가 문제가 아니었다.

디모데의 경우 구원 문제가 아니라 섬김의 문제

디모데는 방문하는 교회들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상대해야 함, 유대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됨, 그래서 할례를 줌(고전9:19-23). 디모데의 구원과는 무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 제거, 하나님의 사람의 결정: 언제 어떻게 원칙을 지키고 양보하는가?

그 뒤 디모데는 교회들의 확장에 큰 역할, 바울과 함께 다니며 문제가 생기는 곳에서 대사 역할, 그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딤후1:3), 아마도 바울의 로마 순교 바로 전에 바울을 만났을 것이다(딤후3:21)

새로운 사역지(16:6-12)

바울은 동쪽으로부터 자기가 새운 교회들 방문, 소아시아와 비두니아 진출
그러나 주께서 문을 열지 않으심(6-7)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마 바울은 지쳤거나 조금 낙심하였을 것이다.

지금까지 순탄한 여정, 그런데 갑자기 일이 안 된다.

한편 심지어 사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행18:19-19:41)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데려가심. 처음으로 유럽 진출

바울이 그대로 아시아에 남았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이 나타남, 마케도니아 사람의 부름(9),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 거기로 들어감
10절부터 대명사가 we로 바뀐다.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가 드디어 드로아(트로이 목마, 호메로스의 전쟁 서사시 일리아스, 그리스와 트로이
전쟁, 목마를 남김, 패배)에서 바울과 합류하여 여행함

사도행전에는 세 개의 we section(행16:10-17; 20:5-15; 27:1-28:16), 17:1에는 we에서
they로 바뀐: 아마도 누가는 빌립보에 남은 것으로 보임, 빌립보 교회 목회를 위하여, 그리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난 뒤 행20:5에서 다시 we로 바뀐, 어떤 이들은 빌립보가 누가의 주거지, 어쩌면
바울의 환상에 나타난 사람이 누가? 누가에 대한 의견: 안디옥에 사는 그리스 사람, 아니다. 그리스
말은 하는 유대인, 거주지 역시 안디옥, 혹은 드로아 혹은 빌립보

드로아에서 빌립보의 항구인 네아폴리스까지는 약 240km, 이를 걸림, 뒤에 보면 되돌아갈 때는 5일
걸림(역풍 때문에). 빌립보는 네아폴리스에서 내륙으로 약 16킬로미터

누가의 빌립보 설명(16:12), 아마도 그는 자랑스럽게 여겼다.

빌립보: 마케도니아의 도시. 마케도니아의 필립 왕은 이곳을 보수하고 치장하였으며 이곳은 로마의 식민지
로서 여러 가지 특권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마케도니아의 주요 도시가 되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뒤 바로 여기에서 유럽 대륙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였다(행16:9-12). 이곳에서의
첫째 개종자는 루디아였으며 여기에 생긴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된 이 여인의 성격을
많이 닮았다. 바울과 실라는 여기에서 점치는 소녀에게 들어간 마귀를 내쫓은 이유로 때를 맞고 옥에
감혔으나 기적적으로 풀려났고 이에 놀란 간수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고 침례를
주고 암피폴리스로 넘어갔다. 한편 성도 누가는 여기에 머문 듯하며 후에 바울이 다섯 번째 예루살렘에
갈 때에 다시 그와 만난 듯하다(행16:8-40; 20:3-6).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처음 옥에
감혔을 때 기록한 것이다.

로마의 식민지 의미: 로마를 떠난 로마, 황제는 선정된 로마 시민들이 식민지의 선택된 곳들에 살게
하였다. 식민지는 대체로 전략적 요충지

새로운 동역자 루디아(16:13-15)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의 수가 적음, 그래서 회당이 없었다(10명이 있어야 회당 설립 가능).

도시 밖의 강 곁에 기도처, 마케도니아 남자를 보았는데 여인들을 섬기게 됨

유대인들의 견해: 율법의 말씀들을 여자들에게 전하느니 태우는 것이 낫다. 여자 무시

그러나 바울과 기독교는 달랐다. 그는 주님의 예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함

루디아는 소아시아의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 장사, 성공한 사업가

하나님의 인도로 마케도니아에 옴, 개종자는 아니지만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진리를 탐구함
바울은 그녀와 이야기하면서 복음 선포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 그녀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음

하나님이 다 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그 말이 맞는지 듣고 판단하였다.

루디아의 구원, 하나님의 예지 예정, 바울을 보내신다. 그녀가 듣고 믿는다(살후2:13-14).

그리고 곧바로 침례를 받음, 선교사들을 집으로 모심, 그녀의 집안사람들 회심, 이들에게 복음 선포,
빌립보 교회 형성, 아마도 누가의 목회

12 사도 바울 맥잡기: 바울의 빌립보 선교의 의미와 빌립보서

성경말씀: 행16:16-40

지난 시간: 행13-14장 바울과 바나바의 역사적인 1차 선교 여행, 15장: 역사적인 예루살렘 회의, 크리스천의 유대교 탈출, 영원한 독립 선언, 15장 뒤부터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16장 예상치 않게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에 진출하게 됨, 빌립보로 가서 루디아를 만남
오늘은 빌립보에서 바울의 적극적인 사역과 빌립보 교회 형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
빌립보는 어떤 도시인가? 누가의 표현(16:12)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힘

루디아 가정 구원, 곧바로 마귀를 통해 큰 사건 발생, 마귀 들려 점치는 소녀(16), 점친다: 그리스말 피쓴, 아폴로의 이름 중 하나, 예술의 신, 점치는 것으로(soothsaying, 앞날의 운수·길흉 따위를 미리 판단하는 일)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드 줌(16)

바울과 그의 동료들 정기적으로 기도하러 가서 복음 선포(16), 그런데 이 소녀가 이들을 따라오며 외침(17)
이 소녀의 말은 다 진실, 소녀가 여러 날 그렇게 함(18),

왜 그런 말을 했을까? 1. 그렇게 하면 바울과 실라가 돈을 주지는 않을까? 2. 그들이 그 영을 내쫓을까 두려워서 그들의 호의를 입으려고, 3. 그들이 하나님의 종임을 알았으므로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고
바울이 그 영을 내쫓은 이유: 1. 그녀와 자기들이 한 통속으로 인식되면 복음 전파 방해, 2. 그녀를 붙잡히 여김, 3 그 당시 세상에는 그와 같은 마귀의 활동이 성행함, 아폴로 신전, 사기와 협잡, 기독교는 이런 시스템을 몰아내는 일을 함, 4.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소녀의 증언을 통해 복음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원치 않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음(18).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많이 말하라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파워에 힘입어 한다, 이름(행3:16; 4:17-18)

분명히 마귀는 진실을 말할 수 있다(다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는 곧바로 거짓을 말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바울은 이를 알고 마귀 축출

그런데 이 소녀의 주인들은 소녀를 붙잡히 여기지 않고 바울 등을 붙잡음(19)

이들은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었다. 사도행전에는 돈과 사역 문제가 종종 언급됨(5:1-11; 8:18-24; 19:21-41; 20:33-34 등)

행정관들에게 고소함(20-21), 그들의 생각: 선교사들은 유대인, 로마 제국이 승인하지 않은 종교 포교 승인할 수 없는 종교의 관습들을 펴뜨린다. 우리가 이들을 대적하여 일어남(22)

행정관들이 그들을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둔 뒤 간수에게 지키게 함(22-24). 때리기 전에 옷을 벗김
행정관들은 종교적 인종적 편견에 따라 아무 것도 묻지 않고 이 일 감행, 뒤늦게 후회함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 그런데 왜 그것을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

행22:25-29, 25:11-12에는 언급함, 말할 기회가 없었거나 더 큰 목적을 위해 숨김
이렇게 해서 빌립보에서의 선교는 끝이 난 것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다른 계획

이 두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불평하거나 하나님이 원수들을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음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25)

고통을 당할 때 한밤중에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읊기를 보면 하나님은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욥35:10; 시42:8)

고통당할 때 찬송과 기도는 강력한 무기(여호사밧 대하20:1-22; 행4:23-37)

1. 그리스도인은 상황에 상관없이 내적 기쁨, 2. 아무도 그들의 화평을 빼앗을 수 없다.

3. 성도의 양심의 평안, 4. 거룩한 기쁨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 안에는 적어도 16번이나 기뻐하라는 말이 나온다(빌4:4 등)
하나님께서서 지진을 일으켜 응답하심(26)

간수의 생각(27)

그러나 바울을 비롯해서 아무도 도망하지 않음(28)

죄수들도 이 두 사람이 비범한 사람들임을 인지함
그 당시 로마 법: 간수가 죄수를 잃으면 대신 처벌을 받음
바울은 감옥의 간수에게 주의를 기울였다.

간수의 첫 마디(30); 대단히 중요한 말, 간수는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지하였다(점치는 소녀 사건, 지진). 그 결과 유명한 질문(30): 가장 중요한 질문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대답(행15:1), 천주교인들의 대답: 중보자 마리아에게 기도해라.

부처, 무함마드에게 구하라

바울은 No! 바울과 실라의 대답(16:31),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16:31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간수가 믿음으로써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다.

아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한다. 개별적으로 구원
네가 구원을 받고 네 가족이 믿으면 그들이 구원받는다.

그 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아기는 없었다. 32-34를 보라.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즉시 침례를
받고 기뻐하였다. 자발적인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가족 구원: 고넬료의 가정(행10:24), 그리스보의 가정(행18:8), 모든 사람이 각자 듣고 믿었고 또
침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가정의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

어른들이 아이들을 대신해서 결심을 내리는 일 없다. 그래서 유아 세례 등 불필요

간수의 변화: 구원받자마자 이들의 상처 치유, 먹여 줌(33-34)

자기가 행한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려는 마음과 행동이 나와야 한다.

누가는 다른 죄수들에 대해 기록하지 않음, 아마도 몇 명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았을 것이다.

어쩌면 그들 중 얼마는 사형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천국의 소망

여하튼 간수와 그의 가족들, 구원받은 죄수들이 루디아 가족과 함께 교회를 형성함, 빌립보 교회
행정관들의 판단: 그들에게 죄가 없으니 놓아 주라(35).

바울의 판단은 달랐다(36-37)

이유: 비밀리에 옥에서 나가면 새로 세워지는 교회에 부담, 무죄라는 것을 밝혀야 교회에 유익함
바로 이때에 바울은 로마 시민의 특권을 동원함(37), 실라도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그 결과 (38-39)

바울과 실라의 행적(40)

결론: 주님의 일은 도전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이루어진다. 사역자들 간의 문제, 외부로부터의 문제,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진척된다.

구원받는 방법도 다양하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영향, 루디아는 기도하는 장소에서 조용히 바울과
대화하는 가운데, 간수는 극적으로, 자살 기도하다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됨

여러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널리 알려야 한다.

빌립보서

빌립보 첫 방문 AD 50년경, 루디아, 간수 가족들로 교회 형성, 아마도 누가가 남아서 목회
아마도 12-3년 뒤인 62-63년경 로마 감옥에서, 옥중 서신, 옥중에서 기록된 것으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감사와 찬양, 환희의 기쁨이 넘치게 표현되고 있는 것도 본서신의 장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감옥에서 유럽 선교의 첫 열매인 빌립보 교회 위해 늘 기도(1:3-5), 복음 안에서 교제, 6절의 의미
바울의 상태; 로마 감옥, 성도들의 사랑의 선물(4:18, 돈), 에바브로디도가 전달자(직선거리로 1,000킬

로미터가 넘는다), 그런데 전달 과정에서 그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살아남(2:25-30),
그가 회복되자 그를 통해 기쁨의 편지를 빌립보에 보냄.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사는 바로 그리스도, 37회

즉 빌립보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가장 잘 보여 준다. 즉 그리스도 중심의 서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복음의 교제 안에 거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기쁨(히12:2)

1:4, 18, 25, 2:2, 17-18, 28-29, 3:1, 4:4, 10 등의 기쁨, 기뻐하라.

여기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특별히 고통과 고난 속에서 흘러넘치는 기쁨
21세기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기쁨

바울과 실라가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 빌립보서 2장 5-11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시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시고, 심지어는 보통 인간들보다 더 낮고 비천한 삶을 사셨다.” 그 분명한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다. 이는 당시 보통 사람들에게서도 흔치 않는 비참한 죽음이다. 이를 통해 바울은 주님의 겸손과 희생정신을 가르친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왕좌 오른쪽에 앉게 된 이면에는 이런 주님의 희생과 겸손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바울 역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옥중에서도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위로하고 권면하며 주안에서 기뻐하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주님의 겸손을 본받으라고 당부한다(2:5). 낮아지지 않고 높아질 수 없으며,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다는 본서신의 핵심 교훈이야말로 하늘 끝까지 높아지려다 수없이 실패하는 현대인들이 다시 한 번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라 하겠다.

13 사도 바울 맥잡기: 바울의 데살로니가 및 베레아 선교의 의미

성경말씀: 행17:1-15

지난 시간: 빌립보에서 바울의 행적, 루디아와 그 가정 구원, 점치는 소녀, 마귀를 내쫓음, 감옥에 갇힘, 하나님 찬양 기도, 지진,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 가정 구원(행16:30-31), 빌립보 교회 형성, 누가 목회(?)

오늘은 행17:1-9에 있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 선교, 2차 선교 여행 지도 다시 설명
시작은 15:40-41, AD 49년 늦가을, 시리아와 길리기아, 바울의 고향 다소, 갈라디아 지역의 터베, 루스드라(디모테),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사람의 꿈, 유럽으로 넘어가 빌립보(16), 데살로니가(17:1-9), 베레아(17:10-15), 아테네(17:16-34), 고린도(18:1-17, 1년 6개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과 함께 에베소, 홀로 가이사랴, 안디옥 귀환(17:18-22), AD 52년까지 약 2년 반-3년

1절: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까지 약 160킬로미터 여행

아마도 앞의 두 도시는 크지 않아서 회당이 없었을 가능성

바울의 선교 전략: 큰 도시에 교회를 세워 센터를 만들고 그 교회가 주변 지역 선교하게 하는 것
데살로니가: 현시대 페살로니키, 그 당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는 가장 큰 도시, 항구 도시, 여러 무역로의 경유지, 로마 총독의 거주지, 아테네 다음의 큰 도시, 로마 제국은 마케도니아의 수도로 삼음(BC 164년), 바울 당시 인구 20만, 성경의 도시 중 현재도 존재하는 도시 중 하나이다. 선교 면에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전략적 도시,

데살로니가 선교(1-9)

늘 그러하듯이 회당으로 들어감(1-2)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직업(행18:2-3), 아마도 주중에는 텐트를 만들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유대인들 선교, 회당에는 경건한 유대인들, 이방인 개종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데살로니가 회당 사역은 삼주 지속됨(2), 그리고 회당 밖에서도 선교, 그러나 기간은 모름
데살로니가 체류 기간 전체는 모름, 어느 정도(적어도 몇 달) 되었을 것이다. 빌4:15-16,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의 선물을 두 차례 받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다.

살전1:3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4-10절 읽고 설명

회당 회중을 향한 바울의 행동(2-3)

1. 토론하였다(reason): 이성적인 방법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2. 성경 기록들을 열었다(open): 설명해 주었다.
3. 입증하였다(allege):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주었다.
4.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셔야 함(고전15:1)

특히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 강조(행1:21-22; 2:32; 3:15; 5:32), 부활의 증인 또한 이교도 세상은 부활이 아니라 윤회 혹은 멸절을 믿었다.

3주 회당 사역의 결과(4): 남자들 중에는 아리스다고와 세군도(행20:4)

그런데 모두가 기뻐한 것은 아니다. 불신 유대인들의 소란(5-9)

바울의 기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유대인들이 자극을 받아 성경 연구, 그리스도 발견(롬 11:13-14)

그러나 그런 일은 생기지 않고 오히려 박해만 생김

이들의 주장: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7), 카이사르를 대적하는 일, 예수님을 대적할 때도 비슷함(눅 23:2)

데살로니가 전후서: 특별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강조

보석금: 그들이 도시를 떠난다는 약속, 어쩌면 여기의 야손은 바울의 친척(롬16:21)

바울은 이것을 사탄의 계략으로 생각함(살전2:18)

베레아 선교(10-15)

밤에 베레아로 떠남(10),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약 70킬로미터 여행

역시 회당으로 들어감, 구약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유대인들 발견

성경은 이들을 ‘고귀하다’고 표현함(noble, 11). 바울의 말을 듣고 날마다 성경 대조 연구(11: 요5:39)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슷함(살전2:13)

말씀을 듣고 그러한가 탐구하여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베레아 사람들

성도들이 목사들의 설교/강해를 늘 탐구해야 한다. 맞는지, 그른지

베레아 사람 소바더(행20:4), 어쩌면 이 사람은 로마 성도들에게 인사한 소사바더일지도 모른다(롬 16:21).

그런데 사탄이 그냥 있지 않는다. 데살로니가의 불신 유대인들 동원, 선동(17:13)

살전2:13-20을 보라

마귀에게도 그의 사역자들이 있다(고후11:13-15)

결국 바울은 좋은 선교지와 동료들(실라와 디모데)을 두고 아테네로 떠나게 되었다(14).

후에 실라와 디모데를 아테네에서 만남(15)

그리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냄(살전3:1-6)

데살로니가전후서 기록 배경

베레아에서 다시 아테네로 피신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어 그곳의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였다. 사도가 아테네에 있을 때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에 대한 인신공격이 있고 죽은 성도들로 인한 염려가 있음을 알려 왔으며 이에 사도는 그들에게 먼저 자신을 변호한 뒤 박해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 할 것을 말하며 이미 가르친 적이 있는 진리를 확증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였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모텔 교회에 보낸 첫째 편지였는데 이 교회는 나무랄 데가 거의 없는 순전한 교회였다. 이 교회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다. 그는 그들의 선택, 성령의 사역, 확신, 삼위일체, 재림, 성화, 부활과 휴거, 주의 날, 사람의 삼위일체 등을 가르쳤다.

기록 시기: 주후 51-53년경(가장 초기의 편지)

서신 기록의 이유:

1. 그의 사랑과 염려: 그는 밤에 도망갔다(행17:10). 반대자들이 바울을 비방함(살전2:5).
2. 재림의 소망을 확고히 하기 위해(죽은 자들 문제), 극심한 핍박(주의 날이 임했다고 믿는 사람들).
3. 성화의 삶: 부도덕한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성행함.
4. 교회의 문제: 지도자들 존중(살전5:12-13), 무위도식자들(살후3:6)

특별히 재림 문제 상술

살전4:13-18

환난 전 휴거: 살전1:10, 5:9

살후2: 적그리스도와 세상의 마지막 때

교훈:

1.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살전 2장의 바울의 모습
2.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다(롬1:16): 몇 달 만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다.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왔기 때문이다(살전1:5).
3. 아직도 마귀는 핍박하고 있고 이것이 성장의 기회이다.
4. 유대인 먼저, 이방인 다음: 우리의 경우 일반 교회 교인들, 그 다음 불신자

14 사도 바울 맥잡기: 사도 바울, 철학과 우상의 도시 아테네에서 말씀을 선포하다
성경말씀: 행17:16-34

지난 시간: 빌립보에서 170킬로미터 데살로니가, 3주 안식일, 짧은 기간, 교회 세움, 유대인들의 반박, 70킬로미터 떨어진 베레아로 감, 성경을 상고하는 고귀한 유대인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아테네로 감,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방의 도시, 이름은 시(市)의 수호신 아테나 여신과 관계가 있다.

원래 아테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티카 지방의 중심도시이며 현대 그리스의 수도. 페리클레스 치하에서는 황금시대를 이루어서, 현재의 아크로폴리스 위에 보이는 파르테논 신전 등의 건축이 이루어졌다. B.C. 403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에 패한 후에는 정치의 주도권은 잃었으나 학예에 있어서는 역시 그리스의 중심이었다.

도시는 아크로폴리스(해발고도 156m)를 중심으로 몇 개의 작은 언덕이 있다. 남서쪽에는 아레오파고스(아레오바고) 등의 언덕이 있다. (*) 그림 설명

아크로폴리스의 북동부가 시의 중심부이며, 왕궁·의사당·관청·대학 등이 있다. 아크로폴리스의 북서부는 상업의 중심지이며, 길들이 뒤얽혀 있다. 고대에는 아크로폴리스 주변, 특히 북쪽이 시의 중심이었는데 고대 그리스시대의 '아고라'는 아크로폴리스의 북서쪽 기슭에 있었다.

베레아를 떠나서 330킬로미터 홀로 아네테(살전3:1), 구경꾼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 바울 당시 아테네는 쇠락의 길, 그러나 세계 최고의 문화 예술 도시, 완전한 이교도 문화, 1. 범신론 및 우상 숭배, 2. 신기한 것 탐구(21), 3. 철학에 빠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 다 사람 모습, 수도 없이 많다. 사람보다 신이 더 많은 사회
바울이 목격한 관경(16)

현시대 우리가 우리러보는 조각품들, 그 당시는 다 우상 숭배 대상
우상들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없다(고전8:1-6). 우상 숭배는 마귀 숭배(고전10:14-23)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전1:18-25).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반응(16): 격분해야 한다.

바울의 전도(17), 유대인들은 회당, 이방인들은 장터, 여기 장터가 그리스말로는 아고라, 여기서는 누구와도 이야기하였다.

그리스 사람들의 철학(18),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철학은 진리를 생각하는 과학)
실제로 철학은 무엇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현명하지 못한 대답', 신약 성경에서 철학은 헛되이 또 사악하게 사람의 논리를 세우는 것을 뜻하며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 이 세상의 지혜,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전1:18-27; 딤후6:20).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철학으로 인해 스스로를 파멸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였다(골2:8). 철학은 또한 교묘하게 사람의 고귀한 기능인 논리를 비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람의 마음이 타락했음을 보여 주는 슬픈 증거 중 하나이다. 바울의 경고: 지성의 교만은 무신론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오고 계시의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을 거절한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겸손하고 온유하여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믿고 받아들인다.

에피쿠로스 학파: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들. 그들은 유물론자요 무신론자이며 자연의 원자들이 영원 전부터 존재해 왔고 그것들이 우연히 결합되어 모든 것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형성했다고 믿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부인하고 죽은 뒤의 심판과 심지어 혼 자체를 부인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라고 믿었으며 과욕이나 탐닉이 사람의 행복을 빼앗지 않는 한 나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학파의 창시자 에피쿠로스는 학식과 윤리가 있는 사람으로 이런 원리에 따라 모범적인 삶을 살다가 주전 271년에 73세로 죽었으나 그의 추종자들은 그가 만든 한계를 저버리고 무제한으로 쾌락을 추구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그들은 극도로 부패하였고 자신들의 철학과 인생관에 의해 하나님, 부활, 영원한 심판 같은 진리를 대적하였다(행17:16-34).

에피쿠로스 학파 요약: 실존주의자, 유물론자, 무신론자, 이성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진리를 구하려 하였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Stoics, 스토익스) 주량을 뜻하는 그리스말에서 나온 고대 그리스의 철학 학파 사람들. 이 학파의 창시자 제논은 그리스도가 나기 300년 전에 아테네에서 주량에서 학교를 운영하였다. 그들은 본성과 이성에 맞게 사는 것이 사람의 행복이라고 가르쳤으며 이 점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완고함과 인내와 무감각과 내핍의 특성을 보였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그들은 큰 인기가 있었다(행17:18).

스토아 학파 요약: 우상 숭배 거부, 범신주의, 이성주의자, 인간의 마음을 부추김(하나님은 필요 없다).

재미있는 일: 스토아 학파의 처음 두 지도자는 자살(제논과 클레안테스)

드디어 바울과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곳 사람들에게 전달됨, 아고라에서의 논쟁(18).

바울의 선포의 핵심: 예수님과 부활, 한 마디로 그는 늘 하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기서도 선포함
이방인들이 행한 일(19-20): 아레오바고로 데려감 (그림)

아레오바고: 마르스의 언덕(22). 이곳은 아테네 사람들의 유명한 재판소가 있던 장소였는데(행 17:19-34) 이 재판소는 전직 집정관들로 구성되어 의로운 재판을 했으며 그래서 그리스 밖에도 잘 알려졌다. 그들의 숫자와 권위는 시대에 따라 변했으며 그들은 주로 밤에 심판을 했고 살인, 불경건, 부도덕, 게으름 등을 판단하여 벌을 주었으며 덕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었고 특히 신들을 모독하는 일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므로 바울의 경우는 당연히 그들 앞에 상정되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그들의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기독교를 세우려 하였기 때문이다.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탐구자들은 바울이 날마다 시장에서 변론하는 것을 듣고 그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그를 가까운 언덕으로 데려갔다. 아레오바고의 돌 의자들은 빈 채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거기에 스토아,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둘러서고 그들 주변에는 우상과 신전으로 가득한 도시가 서 있었다.

아레오바고는 일종의 도시 위원회, 도시에서 전파되는 종교와 교육에 대해 감시함, 그러므로 당연히 바울의 가르침 검사 필요, 그래서 예의를 갖추어 바울을 데려다가 그의 가르침을 조사하려 함
그 이유(19): 아테네 사람들은 새롭고 신기한 것에만 관심을 둬, 그러나 성경은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고 말함(전1:8-11)

바울의 변호 설교(18-31): 위대한 설교 중 하나, 심히 논리적이다. 아테네 사람들에게 적합함

아테네의 상황(22): 지나치게 미신적이다. 종교심이 많은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의 미신(23), 알지 못하는 신에게, 타이틀이 붙은 신전, 혹시 한 신이라도 무사할까 봐
문제: 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경배하는가? 그게 바로 미신이다.

기독교의 특징: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여기서 믿음이 나온다. 구원

그래서 성도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계시, 영감, 성격 기록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준다(23)

가장 중요한 것: 이교도들에게 창조를 가르침, 유대인들에게는 불필요

그 당시 이교도들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름, 기원을 모르면 종착지도 모름, 창조 신앙 기초

1.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24).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철학 1번 질문, 진화론자 2번 질문, 기독교는 세 질문 모두 답을 준다.

에피쿠로스 학파: 유물론, 무신론, 스토아 학파: 범신론(모든 게 신)

바울은 창1:1,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무신론, 범신론, 불가지론 타파
창조는 무에서 유, 그렇게 된 때가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시다(24). 그래서 그분은 신전에 간혀 있지 않다(24).

우상을 통해 경배받지 않는다(25). 파르테논 신전 등

2.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25). 사람들의 착각: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이유: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돈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사려고 하면 안 된다.

3.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다(26-29).

이방 신들,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관심이 없다. 성경의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 한 사람 아담에게서 모든 민족 형성(26)

세상 모든 민족들의 주거지 정함(26-27), 바벨탑 사건 이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짐

이유; 사람은 한 언어를 쓰고 함께 모이면 하나님을 대적한다. 니므롯, 적그리스도

말세의 징조: 여행, 이민, 결국 언어의 통합, 하나님 대적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옆에 계신다(27-29). 그리스의 두 시인: 아라투스과 클레안테스(28)

모두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29). 그리스 로마 신화는 우스운 것, 허망한 것이다.

4. 하나님의 은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심판자이시다(30-34).

하나님께서 이들의 무지를 참으시고 진노를 펴붓지 아니하셨다(30).

백성의 무지, 그 결과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 주심(롬1:19-20).

그리고 이제는 구원자를 보내 주시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신다(30).

구원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31).

구원자가 다시 와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어떻게 아느냐? 그분의 부활로

아래오바고 사람들의 반대는 부활 때문이었다. 이들에게 직사포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 몸은 감옥, 죽으면 몸에서 해방, 행복, 왜 죽은 몸을 살리는가? 왜 하나님이

각 사람을 심판하는가? 그들은 불멸은 믿었으나 부활을 믿지 않음

5. 세 가지 반응(32-34), 1. 조롱, 2. 관심, 3. 믿음

여하튼 숫자 면에서는 바울의 아테네 사역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그러나 바울의 판단은 오랫동안 그들에게 남은: 그리스 로마의 찬란 문명 시대, 무지하던 때(30)

마귀가 너무 오랫동안 그들의 눈을 가림(고후4:3-6).

그 뒤에 80킬로미터 서쪽의 고린도로 감(18:1)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가? 그분을 믿는가?

15 사도 바울 맥잡기: 사도 바울, 우상과 음행의 도시 고린도에서 말씀을 선포하다
성경말씀: 행18:1-17

지난 시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3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아테네, 철학, 문화, 우상의 도시 바울의 위대한 설교 17장, 창조자 하나님, 신전들 지어 놓고 우상들 섬기는 것 No, 무지하던 때, 이제는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심판 날을 정하심,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심
믿은 자들의 수는 많지 않음, 교회도 세워지지 않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심판 명확하게 선포함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감(1), 83킬로미터 서쪽, 지도 1개(*)

고린도: 아가야 지방의 수도. 고린도는 육지 쪽으로 조금 들어간 곳에 위치해 있고 서쪽과 동쪽에 레카움과 겐그레아라는 항구가 있었다. 고린도는 좋은 위치에 있었으므로 상업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동서의 무역상들이 고린도를 통해 무역을 했다. 또한 이곳은 펠로폰네소스의 관문이고 남 그리스와 북 그리스 사이의 연결 도시였으며 그 결과 그리스에서 가장 부유하고 사람이 많은 도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런 재물로 인해 자만심과 부도덕 그리고 동성연애 등의 사악한 죄악이 이곳에 만연하게 되었고 특별히 이곳의 주민들은 음란한 것을 허용하고 비너스 숭배를 통해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그 결과 비너스를 위한 창녀들이 공공연히 생겨났다. 고린도는 주전 146년에 로마 사람들에 의해 파괴되었고 카이사르 율리우스는 그곳에 식민지를 세웠다. 이렇게 해서 도시의 영화는 부활했지만 그와 동시에 이전의 악한 일들도 다시 살아났다. 사도 바울은 주후 52년경에 고린도에 도착해서(행18:1)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장막을 지으며 거했다. 이렇게 스스로 일하면서 그는 일 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후에는 이방인들에게 성공적으로 복음을 선포했다.

당시 고린도 인구 약 20만 명, 그러나 우상과 음행의 도시, 사악하기로 유명함(롬1:18-32가 이루어진 도시), 복음 선포, 교회 세우기 쉽지 않음

아테네를 떠나면서 바울이 작심함(고전2:1-5): 예수님과 십자가를 높이고 단순한 복음 선포

그 이유: 아테네에서의 열매가 많지 않음, 고린도에도 수많은 철학자, 미신 숭배자

바울이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을 피하기 위해 한 일: 직접 장막을 만들며 사역함(2-3)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이미 좋은 부부를 예비해 놓으셨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2, 딤후4:19).

대다수 유대인 랍비들, 학생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해서 생계 유지

유대인들은 직업이 무엇이든 생계는 자기 힘으로 꾸린다. 바울의 아버지 역시 같은 정신, “아들에게 일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아버지는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살후3장

그래서 다소의 사울은 어려서부터 가족으로 장막 만드는 일을 함(행18:3, 고전9:6-15; 고후11:6-10).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났을 때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을까? 아마도 Yes.

어쩌면 그들은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들(롬16:3-4).

이 부부는 에베소에서 바울 후원(행18:18-28), 자기 집에서 교회 모임(고전16:19)

바울 선교 사역의 중요 멤버,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평신도 사역의 대표적인 사례

아마도 바울은 이 부부와 함께 거하며 일한 것으로 보임, 안식일에는 같이 회당에서 증언(4)

이때에 실라와 디모테가 마케도니아에서 음(18:5; 17:14-15). 재정 도움을 가져옴(고후11:9)

어쩌면 이 선물로 인해 바울은 전임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살전 3장은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세운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 주며 이로서 바울이 큰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 교사, 목회자, 그러나 형제들의 도움이 없이는 그의 사역 성공 불가능, 그러므로 교회는 목사, 선교사 등 전쟁의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 도와야 함, 실라, 디모테,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러 교회들의 헌금

갈6:2, 이런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이 없었으면 고린도 교회 확립 불가능

반대에 직면함(18:6-8)

마귀가 그냥 있지 않는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처럼 유대인들의 불신, 공격(5-6).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다시 느끼는 것: 교회가 발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면 반드시 반대하는 공격이 있다(고전16:9).

마귀에게도 영역이 있다,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 공격, 바울에게는 불신 유대인들이 가장 큰 적 테살로니가, 베레아에서와 다른 점: 그 두 곳에서는 반대로 인해 떠남, 고린도에서는 1년 반 동안 남아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함

6절의 웃을 터는 행위: 구약에서는 심판의 행위: 기회를 주었는데 너희가 박차는구나.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 선교 지속함, 그러나 그는 이방인들의 사도였다(행13:46-48; 28:28).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 나는 무죄하다. 너희 책임이다.

이런 이미지는 에스겔서에도 나온다(겔3:17-21; 33:1-9). 파수꾼의 책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민들 죽음, 그 피를 그의 손에서 요구하신다. 이 경우는 피를 그의 손에서 요구

바울의 증언: 내 손은 깨끗하다. 가르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가르쳤다(행20:26).

좋은 이방인 친구를 만남 그의 이름은 유스도(7), 디도 유스도, 아마도 전체 이름은 가이오 디도 유스도 가이오는 롬16:23에 나온다.

바울은 회당을 떠나서 유스도의 집에서 사역, 회당 바로 옆(7), 계속해서 유대인들, 개종자들 접촉 가능 그 결과 회당장 그리스보의 회심(8), 그리스보의 가정도 다 구원(고넬료, 루디아, 간수 등)

고린도의 유대인들 격분

고린도에서 바울은 주님의 명령 실행(18:8, 마28:19-20), 고전1:14-16, 바울의 동료들이 대부분 침례를 줌, 바울은 몇 사람에게만 줌, 예수님 당시에도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줌(요4:1-2).

침례의 의미: 죽음, 매장 그리고 부활, 누가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 여하튼 바울에게는 상황이 좋지 않았으나 그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갔다.

주님의 위로와 확신의 말씀(9-17)

회당장 그리스보의 회심, 많은 기회와 동시에 많은 반대

누가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으나 8-9절을 종합해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 어쩌면 떠나려고 함. 이때에 주님이 말씀을 주심(9-10).

우리에게도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주님의 위로와 확신(8-9)

구약 성경의 성도들, 아브라함(창15:1), 이삭(창26:24), 야곱(창46:3), 여호사밧(대하20:15-17), 다니엘(단10:12, 19), 마리아(눅1:30), 베드로(눅5:10)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히13:5, 사41:10, 43:1-7을 보라. 주님의 임재를 구하라.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 여러 차례(행9:1-6; 행18:9; 행22:17-18; 23:11, 딤후4:16-17).

주의 천사가 나타나기도 함(행27:23-25)

주님의 이름 임마누엘(마1:23),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1. 지금 믿는 자들이 많다, 2. 앞으로 믿을 자들이 많다.

이미 주님이 알고 있다. 그러면 왜 전도할까? 주님의 미리 아심, 선택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전해야 한다. 주님의 미리 아심, 선택은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의무를 준다. 기쁨으로 해야 한다.

16 사도 바울 맥잡기: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볼로의 사역

성경말씀: 행18:18-28

지난 시간: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들어감, 유대인들 대상 전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며 자비량 사역, 유대인들 반발, 유수도, 회당장 그리스보 회심, 유대인들의 격분, 신변의 위협, 주님이 나타나서 격려함(행18:9-10), 그 결과 떠나지 않고 1년 반을 머물며 교회 개척, 목회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1년 6개월을 지내며(버티며) 말씀을 가르쳤다(11).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테네에서 하듯 신학 논쟁하느라 시간을 버리지 않았다. 예정론, 사람의 자유 의지 등, 열심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였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한 자들을 아시지만(10) 우리는 모른다. 그러므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가르치고 선포한다.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 세상적으로 지혜롭거나 우수한 사람들 아니다(고전1:26-31).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바뀐 죄인들(고전6:9-11).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 주신 사례(12-17): 10절을 보라,

총독이 새로 부임하자 유대인들의 폭동, 바울 고소(12), 고소 내용(13):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자들 바울이 변호하려 하는데 대신에 갈리오가 나서서 변호함, 갈리오의 판결(14)

그러자 도시의 그리스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총독 앞에서 때림: 반 유대주의

총독은 상관하지 않음, 소스테네, 그리스보 후임자, 그런데 소스테네도 나중에 회심함(고전1:1) 어떻게 회심했을까? 모른다. 다만 여기서 때 맞은 일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됨

이후 바울, 그리스보 등과 교제

유대인들의 공회는 그리스도 선포 반대(행4:17-21; 5:40)

그러나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 선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음: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등에서의 일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잘 활용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오늘의 첫째 교훈: 바울은 고린도에서 핍박이 심해지자 그만두고 떠나려 하였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려운 시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9-10절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뜻(18-23)

바울은 이 시건 이후에도 고린도에 오래 머물며 말씀 선포(18)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를 떠나 궁극적으로 시리아 안디옥으로 감(18)

그는 먼저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음(동쪽의 항구), 거기에는 교회가 있었다(롬16:1)

아마도 이것은 나사르 사람의 서원(민6), 나사르 사람의 서원은 자발적인 것이다.

은혜를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 즉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헌신을 뜻한다.

무슨 이유로 머리를 깎았는지 모른다. 머리는 서원을 다 마친 후 자른다.

고린도에서 힘든 사역,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결심, 하나님께 대한 감사

시리아로 가는 도중에 에베소를 지남(19)

에베소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른다. 앞뒤 문맥으로 보면 짧은 기간

유대인들의 좋은 반응, 바울이 더 있기를 원함(19-20),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기 원함(21)

나사르 사람의 서약, 끝을 내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완성된다.

그리고 그는 약속대로 다시 에베소에 갔다(19:1). 약 3년을 거기 머물며 말씀 선포, 교회 사역 하나님의 뜻(21),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언급한다. 종교적 슬로건

바울의 삶은 한 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려면 뜻을 알고 행해야 한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다(22:14).

그의 말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사도(고전1:1; 고후1:1; 엡1:1; 골1:2; 딤후1:1)

그는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 이방인들의 사도 하나님의 뜻 바로 알기, 이메일로 매일 매일 알려주지 않는다. 구원받은 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된다. 이것을 일일이 알려달라고 하면서 철야기도 등. 시간 낭비
아담과 이브의 에덴동산 경험,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나무 실과 먹어도 됨
결국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 안디옥으로 내려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여전히 에베소에서 사역함, 24-28절

18:21의 오해: 구원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바울 등은 반드시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가?

20:16 등, 아니다. 이미 그런 데서 벗어났다.

다만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 전도의 좋은 기회, 특히 로마 제국 전역에서 유대인 지도자들
이 옴, 이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바울의 가르침(갈4:1-11), 유대인 명절 지키는 것 구원과 상관없다. 예루살렘 회의(행15장)

어떤 날을 중히 여기는 것은 본인의 자유대로 하면 됨(롬14:1-15:7)

유대인들의 관습에 대해서는 고전9:19-23 참조

22절 가이사라에 내린 뒤 교회로 올라가(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귀환, 49년 말부터 AD 52년까지
약 2년 반-3년, 이렇게 2차 선교 여행 마무리하고 23절부터 3차 선교 여행

아볼로의 등장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 안디옥으로 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남음

아볼로의 등장,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알렉산드리아, 로마 제국 제2의 도시, 알렉산더 대제, 도서관(70만 부), 약 60만 명, 이집트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유대인들, 약 4분의 1이 유대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학대를
피해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내려감, 그래서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강함

아볼로 구약성경에 능통함(24-25), 웅변가, 영이 뜨거움, 열심히 증언함

심지어 회당에 들어가서 선포함(26)

그의 문제: 그는 아직 복음을 완전히 알지 못함(요한의 침례만 앎), 신약 시대에 사는데 아직 구약의
방식으로 말씀을 전함, 즉 요한의 회개의 침례까지만 전함, 요한의 침례 목적: 예수님의 전령으로
그분의 길을 예비함(요1:15-34), 요한 침례의 목적: 메시아 고대(행19:4)

요한은 성령 침례 예언(마3:11), 아볼로는 이것을 알았지만 성취는 모름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등 모름, 열정은 있으나 지식이 부족함(롬10:1-4)

이미 오순절 사건이 20년 이상 지났는데도 잘 모름,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이해해야 한다.

대다수 성도들이 실족하는 책: 마태복음, 사도행전, 변천기를 다루는 책들, 모든 교리가 확립되지 않음
어떻게 아볼로는 침례자 요한을 알았을까? 예수님 당시 침례자 요한 죽음, 그의 제자들이 이집트로 내려감
즉 아볼로는 진정성이 있는 사람인데 지식이 완전하지 못하였다.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순수하게 믿으려고 한다. 그런데 지식이 부족하다.

신약시대가 십자가 사건 이후임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

신약시대에 살면서 여전히 구약 식 교회: 성전, 제단, 제사장 등 형태

우리 교회는 신약 교회를 한다. 교회의 교리: 로마서부터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심으로

예전에 네비게이션이 없을 때, 다 지도책을 펴서 길을 찾아 다녔다.

그런데 새로 길이 나거나 이전 길이 없어졌는데 여전히 예 지도를 사용하면 절대로 목적지를 찾을
수 없다. 새 지도, 새 네비게이션 맵을 설치해야 한다.

아볼로의 구약 성경: 옛 지도, 틀린 것이 아니다. 부족하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새 지도를 준다(26).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에게 필요하다.

그들은 이 일을 공중 앞에서 하지 않고 그를 데려다가 사적으로 함: 유대인들 혼동에 빠지지 않게
그래서 아볼로는 안전한 지식을 가지고 유대인들 설득함, 그리고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27) 큰 도움을
줌(27), 그가 한 일(28),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동안 파당이 생겨남(고전1:12; 3:4-6 등)

아볼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한 것임, 지도자들은 교회 분열 조심

17 사도 바울 맥잡기: 사도 바울, 에베소에서 요한의 침례와 방언 문제 해결
성경말씀: 행19:1-41

오늘부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18:23-21:15), (*) 안디옥에서 떠나 예루살렘까지

주후 53년 여름부터 58년 봄까지, 약 5년

갈라디아 브루기아 방문(8:23)

3차 여행을 떠나면서 그는 갈라디아 브루기아 지방의 교회들 방문, 교회들을 강하게 함, 누가는 자세히 말하지 않음, 3차 여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 에베소 교회

에베소와 다이애나

에베소: (*)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 인구 30만, 가장 큰 도시 중 하나,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 소아시아 모든 교역로의 중심지이며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 그래서 이곳은 '아시아의 시장이며 문명의 빛'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하였다. 또한 에베소가 교통의 요지였던 만큼 이교도 신앙의 중심지이기도 했으며 이곳에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다이애나 신전(행19:35)이 있었고 황제 숭배와 신비 종교, 마술 등이 성행하였다. 또한 에베소는 정치적으로 특권이 부여된 자유 도시로 자유로운 상거래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곳이었다. 그러나 에베소가 얻은 명성은 이교도들의 문란한 종교 의식과 어디서나 행해지는 부도덕 등으로 인해 땅에 떨어졌고 결국 그곳은 향락과 퇴폐의 도시로 몰락하였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이곳을 방문하여 교회를 세우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이곳에서 직접 3년 정도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목회하기도 했다(행18-20 참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눈물로 경고하며 세운 교회로서 영적으로 활기에 넘친 교회였다. 계시록 2, 3장에 기록된 일곱 교회 중 에베소 교회만이 유일하게 사도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했으며 또 감옥에 갇혀서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기록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되는 교회의 신비가 무엇인지 자세히 보여 주었다.

에베소에는 유대인도 많이 살고 회당도 있었다(행18:19, 19:17).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려 얼마동안 전도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 두고 떠났고(행18:21) 3차 선교 여행 때에 들어서 3년 정도 체재하면서 열심히 전도한 결과 소아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모두 주의 말씀을 들었다(행19:10).

사도 요한은 그의 말년을 여기에서 보내며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밧모 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한 뒤 다시 이곳에 왔다가 거기서 그들 가운데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크게 칭찬하고 동시에 엄숙한 경고를 주시기도 했다(계 2:1-5).

이곳의 교회는 600년 정도 지속되었고 그 이후에 사라지게 되어 결국 그곳의 등잔대는 그 자리에서 옮겨지게 되었다. 부유하던 이 도시는 우상 숭배로 인해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항구는 역병이 들끓는 늪지가 되고 말았다. 중요 원인: 항구가 강이 가져온 침적토에 의해 막힘, 614년에는 지진

다이애나 여신: (*) 로마와 그리스 사람들의 주요 여신. 이 여신은 열두 명의 주요 신들 중 하나로서 하늘에서는 루나(달)였고 땅에서는 다이애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헤카테로 불렸으며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는 루시나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에베소의 다이애나는 시리아의 아스다룻 여신과 비슷하며 경배자들은 불순한 예식과 마법의 신비를 가지고 이 여신을 공경했다(행19:19). 그녀의 형상은 하늘에서 주피터에게서 떨어진 것으로 간주되었는데(행19:35) 사실 이것은 나무 조각 형상으로 가슴에는 많은 젖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 머리에는 탐 같은 것이 있으며 손에는 지팡이가 있다. 이 형상은 아주 오래된 것으로 크게 숭배를 받았으며 이 여신의 전은 에베소의 자랑이요 영광이었다. (*) 이 신전은 가로 세로가 120미터와 65미터였고 높이가 18미터인 127개의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었고 그 안에는 값진 보석이 매우 많았다. 이것은 짓는 데만 220년이 걸렸으며 그 당시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사원, 2층을 떠받치는 30여 개의 대리석

기둥들은 다이애나 신전에서 빼움.

사도 바울의 책망이 있던 후에도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애나에 대한 열정은 그 기세가 전혀 꺾이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 있었고 결국 그로부터 약 400년이 지난 후에 에베소 공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마리아로 둔갑한 다이애나에게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부여하는 신성 모독 선언을 채택하고자 말했다.

에베소에서 요한의 침례, 방언 문제 해결(19:1-7)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을 보냈다(행20:31).

에베소 이야기는 먼저 아볼로로부터 시작된다(행18:23-28)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아볼로 발견,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다(18:25), 완전한 진리를 가르쳐 줌, 아볼로는 고린도로 떠남

이 시점에 바울이 에베소로 옴(1), 그리고 열두 사람을 만남, 이 열두 사람도 신실하게 믿고 있었으나 아볼로처럼 무언가가 부족하였다. 그 내용(2)

신약 시대 성도들의 특징: 다시 태어나면 성령님의 침례를 받는다.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가 거듭남의 증거(롬8:9, 16; 엡1:13)

이들의 대답: 애매모호함,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도 모름(2)

바울의 질문(3), 여기서 답이 나오, 그들 역시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 아마도 아볼로가 완전한 지식을 얻기 전에 그를 통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왜 바울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고 물었을까?

사도행전: 물 침례는 성령님의 침례 경험 표시, 성령님의 침례: 그분 안에 잠기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요3장, 성령님에게서 나는 것

사도행전 앞부분(1-10)은 변천기, 침례를 받을 때 방언 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행2, 10)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행8, 16).

시간이 지나면서 신약 시대의 패턴이 고정됨(8장: 10:43-48). 죄인들이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즉시 성령님을 받는다. 그리고 물 침례를 받는다. 루디아, 빌립보 감옥의 간수 등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물 침례 받거나 안수를 받고 나서 성령님을 받지 않았다.

여기의 열두 명, 성령 침례 No, 요한의 침례, 사도들도 요한의 침례(행1:21-22)

아볼로나 여기의 열두 명은 아굴라와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1.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성령님의 침례도 모르고 오직 요한의 침례, 그러므로 구원 불가능
2. 구원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구약 식으로

신구약 시대 모두,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신약시대의 특징: 성령님의 침례, 성령님의 내주,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나타남

이런 것을 아브라함 다윗 등은 경험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사도행전은 유대인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로 넘어가는 변천기 기록 특별히 AD30-AD70까지 약 40년, 아직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은 시점은 변천기 이때에는 순서가 바뀌는 일, 방언을 하는 경우, 하지 않는 경우가 다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AD 70년 이후 신약 성경 완성, 패턴이 고정됨, 죄인들이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즉시 성령님을 받는다. 그리고 물 침례를 받는다.

요한의 침례와 크리스천의 침례의 차이(4), 하나는 기대하는 것, 다른 하나는 뒤돌아보는 것

요한의 침례 대상: 그 당시 유대인들, 십자가 사건 이후 신약 시대, 크리스천 침례

좋은 그리스도인의 징표: 부족한 것을 알려주자 곧바로 침례를 받음(6)

한 가지 확실한 것: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다시 침례 받으면 된다.

과거의 유아 세례 등, 나는 나이 들어 세례, 나중에 물 침례 두 번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님, 방언(6), 안수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방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고넬료 사건에는(10:44-48) 안수 등이 없다. 말씀을 듣고 믿자 곧바로 성령님, 이 경우에도 방언 에베소의 12명의 경우 안수: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 또한 바울의 에베소 사역 준비: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도라는 것을 여러 교회에 보여 줄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내시, 루디아, 간수, 방언 없음

다시 강조함: 변천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기의 사건이 현시대 기독교회의 표준이 되면 안 된다. 오늘날의 표준은 엡1:13-14에 있다. 에베소 사역을 통해 구원받는 자들의 특징, 구원자 예수님을 신뢰할 때 성령님의 선물을 받는다. 침례, 내주 봉인 사역 이것이 표준이다.

사도행전에서 여기가 마지막으로 방언이 언급된 곳(행19:6)

방언 시작 행2:4-11, 여기의 방언은 알지 못하는 천국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다린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들로 말하는 것을 보여 준다.

고넬료 집에서도 방언, 그런데 이 방언 역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행10:44-46; 11:15)

대단히 중요하다. 사도행전 2장 100% 유대인, 10장 100% 이방인

이 두 그룹 모두 다른 나라 말 사용, 한 성령님에게로 침례를 받음(고전12:13)

엡2장에 있는 대로 이방인 우대인 구분하는 벽이 허물어졌음을 방언을 통해 눈으로 보게 해 줌

그러나 오늘날은 어떤가? 방언이 성령 침례 혹은 성령 충만의 표시인가? 누구나 다 받아야 하는가? 아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한다(고전12:30).

방언은 표적 은사 중 하나, 우리는 이미 중지되었다고 믿는다.

타언어의 선물(은사)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말을 학습 과정 없이도 구사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그래서 바른 성경은 고린도전서의 타언어를 '알지 못하는 언어'라고 기록한다.

왜? 초기에는 이런 일 필요, 하나님의 이적, 사도의 권능 확증 등, 다른 나라 말 사용 필요

현재 은사주의자들이 행하는 방언은 사람의 언어가 가지는 논리적인 구조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고 횡설수설 하는 것이므로 성령이 말하는 참된 선물이 아니다.

타언어의 선물은 병 고침의 선물, 기적의 선물, 사도, 대언자 등이 사라지면서 성경의 완성과 함께 사라지게 되었으며(고전13:8) 그래서 고전13:9 이후에는 타언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고전14:21-22는 타언어의 종결 시기를 알려 준다. 방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었고 이사야서의 인용 말씀은 외국어의 표적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주후 70년 하나님은 목이 곧은 유대인들에게 진노를 부으셔서 로마 군대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파괴하게 하였고 그 결과 유대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타언어 즉 방언은 주후 70년경에 목적을 다 이루고 그쳤으며 그 이후로는 정통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 결과 목사나 집사의 자격에도 타언어의 구사가 들어 있지 않다(딤후3: 1).

끝으로 "타언어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전14:39)는 말씀은 그 당시 타언어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유효했고 실제로 행해지고 있었으나 그것을 오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바른 타언어가 다 금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제 타언어는 완전히 그친 상태이다. 한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말라고 하셨으나(마10:5-6)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세대)이 바뀌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마찬가지로 타언어도 경륜(세대)이 바뀌어서 이방인들의 교회와 무관하게 되었다.

결론: 초기에는 이런 일 필요, 하나님의 이적, 사도의 권능 확증 등, 다른 나라 말 사용 필요

유튜브 <방언 왜 안하는가?>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그러나 불필요, 우리나라 말로 해도 충분하다.

16 사도 바울 맥잡기: 사도 바울, 마술의 도시 에베소에서 사도의 표적을 행하며 교회를 세우다

성경말씀: 행19:8-41

지난주부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18:23-21:15), 안디옥에서 떠나 예루살렘까지, 약 5년
(* 지도 다시 설명, 에베소에서 3년 머물며 말씀 선포, 교회를 세움, 두란노 학교 사역
에베소에서 가장 먼저 한 일(19:1-7), 12명의 유대인 혹은 유대인 개종자들 만남, 성령님을 받았느냐.

No!, 요한의 침례만 안다. 이들에게 성령님의 침례를 줌,

늘 그러듯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3달 동안 선포(8), 아마도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내용: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왕국에 관한 것들: 왕, 왕국, 구원 계획, 요한복음 3장
유대인들의 마음이 굳어짐, 예수님의 길 비방(8), 제자들 분리, 두란노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9),
그 결과(10), 참으로 놀라운 사역, 에베소는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 교역의 도시
심지어 바울의 대적들도 인정함(19:26)

두 가지 중요한 사실: 1. 신자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증언, 2. 특별한 기적들

사도의 기적들(11-20)

사도의 표적들(11-12), 막16:20; 롬15:18-19; 히2:3-4, 고후12:12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사모한다. 예수님의 말씀(마12:39),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함
성경 전체를 보면 기적들이 나타난 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 모세 시대, 2.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3.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 각 시대 100년 미만
세 시대 기적들을 모두 합하면 100개 미만, 물론 모든 기적들이 기록되지는 않았다.

예수님의 기적들은 세 가지 목적 달성

1.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필요 충족, 2. 영적인 진리 설명, 3. 메시아 표적으로
사도들도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기적들을 행함

기적들 자체가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눅16:27-31; 요2:23-25).

또한 기적들은 말씀 선포와 연결되어 있었다.

기적 표적의 은사들은 AD 70년경에 사라짐(사도, 대언, 방언, 신유, 축사 등)

누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는 시대(웨슬리, 스펄전, 무디, 로이드 존스 No!)
바울의 기적 선포 필요성: 에베소는 마술의 도시(19:18-19)

즉 그는 마귀의 영역에서 보란 듯이 하나님의 권능 데모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면 등장하는 현상: 마귀의 가짜가 나타남, 알곡과 가리지(마13:24-30, 36-43)
베드로 사마리아(행8:9), 바울 바보(13:4-12)

마귀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 불신자, 약한 성도들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고후11:13-15).

살후2:8-11

유대인 제사장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려는 시도는 흔한 일(14, 눅11:19)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특이한 일(13),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함, 심지어 바울까지
언급함, 그런데 계획이 성공하지 못함(15), 일곱 명을 제압함(16)

만일 이 일이 성공했다라면 예수님의 이름에 치명타, 에베소 사역에 타격

이 일의 결과(17)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은 사람들의 자백과 책들을 불태움(18-19), 그들은 믿으면서도 여전히 마술 행함

회개에 합당한 열매(눅3:8)

구약 시대 야곱의 아내 라헬과 그의 아들들, 은화 5만개, 150명의 1년치 봉급(3천만 원, 45억 원)

에베소 사람들의 분노(21-41)

바울의 계획: 마케도니아, 아가야,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도 가려고 함, 로마로 가려는 계획 나중에
이루어졌으나 그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원치 않는 대로 죄수로 가게 됨

로마서 고린도에서 씀; 열망(롬1:13-15; 15:22-29)

그러나 먼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교회들 방문

고통 중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 위한 사랑의 모금(롬15:25-33)

이 일을 위해 두 사람을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더 머물(22)

바로 이때에 마귀가 바울을 죽이려고 함(23): 은세공업자들 대중 선동하여 바울과 복음 대적(24-27)

큰 곤경을 치름(고전15:32)

3년 동안 바울로 인해 마귀와 그의 세력들 고생, 온 도시가 소동을 일으켜 죽이려고 함

이들이 하던 일: 다이애나를 위한 은 성물함 기념품 제작(24-25)

복음이 들어가면 미신과 수상 숭배 죄에 빠진 사람들이 타격을 입는다. 그래서 대적함

바울은 신전 앞에 가서 데모하지 않음, 매일 가르쳤고 제자들, 회심자들이 나가서 선포함

그러다 보니 기념품 장사가 되지 않음

돈 사랑이 문제(딤후6:10), 그들은 생계를 위해 우상 숭배, 부도덕 촉진

바울은 그와 반대로 참 하나님, 참 자유, 거저 얻는 은혜

사실 그들은 다이애나와 신전을 위해 한 것이 아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생계와 직업(27)

폭도들이 모여 들기 시작함, 벤자민 프랭클린: 폭도는 머리는 많은 데 뇌가 없는 집단

과거 광우병, 촛불 폭도들을 보라

선동의 기술을 아는 소수에 의해 끌려가는 대중이 얼마나 불쌍한가?

대중의 분노(28)

예수님을 보라. 바로 며칠 전에 호산나를 외치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침

이들은 극장으로 몰려감: 보통 25000명 수용(2)

이들의 특징(32)

바울이 안 보이므로 대신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스를 붙잡음(29)

바울이 들어가려 했으나 친지들이 제지함(30-31), 어떻게 생각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러나 어떤 때는 참아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에베소 사람들이 유대인 차별을 행함: 유대인 알렉산더(33-34), 2시간 동안(34)

아마도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을 유대교 신자로 착각함, 알렉산더는 이를 알리려고 했을 가능성

그런데 기회를 주지 않고 조롱함, 유대인들 잡신들 무시함, 그래서 다이애나를 외치며 여호와 하나님

대적함

마침내 고을의 서기가 문제를 해결함(35), 정치적인 이유로

이들을 진정시킴(35)

그리고 사실을 말함(37)

법치를 시행해야 한다(38), 합법적 모임에서(39), 이것이 국가 유지의 힘

여기서 교회들이 나온다(37): 여기의 교회들은 이교도들의 모임(에클레시아),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분리된

사람들, 이단들의 모임도 다 교회라고 한다.

누가의 기록 요약: 기독교회 박해는 주로 유대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촉발되었다.

서기의 마지막 말(40), 그리고 해산

해산한 군중들은 왜 그 일을 했는지 모름

진실은 대개 소수가 말한다. 다수가 말하는 거짓을 따르기가 훨씬 쉽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참과 거짓을 구분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에베소와 다이애나 신전은 사라지고 말았다. 바울과 그의 복음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 에베소는 없어졌지만 신약성경에는 에베소로 보내는 편지가 4개나 남아 있다(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 계2:1-7).

결국 에베소 공회는 주후 431년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승인함, 멸망함

교회는 핍박과 저항과 함께 성장한다. 진리가 들어가면 마귀의 거짓이 그냥 두지 않는다.

진리는 남고 거짓은 사라진다. 진리 편에 서야 한다.

14 사도 바울 맥잡기: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주다
성경말씀: 행20:1-38

바울의 3차 전도 여행(18:23-21:15), 안디옥에서 떠나 예루살렘까지, 약 5년
가장 중요한 장소, 에베소 3년, 두란노 학교, 매일 말씀 선포, 마술의 도시, 하나님의 기적들 출현,
소아시아 사람들이 다 들음, 대적하는 자들, 은 세공업자들, 다이애나 성물함, 25,000명 소요
20장부터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붙잡힌 뒤 로마로 가는 여정, 결의에 찬 모습'

그리스 사역(1-5)

3차 선교 여행 지도, 에베소 소동 이후, 마케도니아(1); 사람들 위로(2), 그리스(2), 19:21 참조
원래 계획은 배 타고 시리아 안디옥 귀환, 그러나 유대인들의 소동(3),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가기로 함(3), 그와 함께 간 사람들의 명단(4), 이들은 드로아로 먼저 감(5), 드로아는 트로이
그리스 지방에서 세 달 동안 머물며 로마서 기록: 롬16장 끝 소개

석 달 동안 방문 목적: 1. 성도들 위로, 강화(2), 2.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 모금(롬15:25-27;
고후8:1-9:15), 그런데 이번에도 바울은 계획을 바꾼다: 유대인 때문에(3)

이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

드로아에서 마지막 예배(6-12)

동료들은 먼저 가고 우리(누가 포함)는 나중에 드로아로 가서 이레 동안 머물

바울의 원래 계획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것(6절, 1월 14일), 안 됨, 그래서 초실절(1월 17일)
이후 50일 뒤 오순절에는 거기에 있으려 함(20:19)

드로아에서 주의 날 교제 만찬, 말씀(7), 이때에는 주의 첫 날, 부활하신 날 모임이 정착됨
당시 일요일은 노는 날이 아니었다. 그래서 저녁에 모임(7).

바울이 한밤중까지 말함(7). 이때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으나 다시 살아남
유두고는 종일 일하고 참석했을 것임, 나쁜 사람이 아니다.

바울을 비난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메시지, 매일 그런 것이 아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경고(13-38)

행20장의 이 부분: 성경의 위대한 장, 교회 목사와 지도자들은 늘 읽고 명심해야 한다.

누가 포함 우리는 드로아에서 앗소: 약 30킬로미터, 바울은 걸어서 가기로 함(13)

그리고 230킬로미터 떨어진 밀레도에 다다름(15), 바울의 다급한 마음(16), 에베소 패쓰
무교절 기간에서 오순절 약 50일, 그런데 이미 빌립보에서 드로아 12일, 밀레도까지 또 4일, 이제
30여일 남음, 그래서 50킬로 떨어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함(17)

사도행전 분석: 바울의 메시지 총 8개 (행13:14-43; 14:14-18; 17:22-34; 20:17-38;
22:1-21; 23:1-10; 24:10-21; 26 등)

그중 20:17-38은 매우 독특하다. 목회자로서 교회와 이별하면서 주는 메시지(전도자, 복음 변호자가
아니라), 3년 동안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핵심 정리, 긍정적인 의미의 경고

장로라는 말: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옴, 초창기에는 유대교 식으로 교회의 치리자들을 장로라고 부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 교회로 바뀜, 장로 대신 감독이라는 말이 쓰임(딤후3, 딤후1)

바울은 이들을 감독자라고 부름(28), 장로 감독 같은 직무 수행하는 사람, 감독으로 고정됨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천주교회 형성, Bishop이 주교로 타락함, 그래서 성경 신자들은 목사(엡4:11)

바울은 지역 교회를 양 떼라고 부름(20:28-28), 양 떼를 이끄는 자 목자(포이텐), pastor
그래서 장로, 감독, 목사는 동일한 직무 수행자

에베소에서의 과거(18-21)

3년 동안 주님과 성도들에게 신실하였다.

첫 날부터(18), 그리스도의 대사로 아낌없이 헌신하였다.

동기: 주님을 섬겼다(19), 돈이나 명예 혹은 개인적인 즐거움 No!

살전2:1-13에 자세히 나와 있다.

방법: 모범이 되었다(18-19). 초지일관 동일한 삶, 겸손한 삶(교회에서 으스대지 않음)
메시지: 회개와 믿음(20-21), 은혜의 복음, 여기에는 회개와 믿음이 같이 간다.
무엇이든 유익한 것을 다 보여 줌, 하나님의 모든 계획 선포(26): 하나만 집중적으로 하면 이단으로
빠지기 쉽다. 편식, 영양실조 교인, 균형 잡힌 말씀: 특권, 의무와 책임도

에베소에서의 현재(22-27)

22절의 보라,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22). 그는 자기에게 닥칠 일을 알고 있다(23-24)

그럼에도 그는 주님의 사역을 마치기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
각종 잡다한 지식,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성경 전체를 가르치고 선포하라.

딤후4:8의 고백처럼, my life, my course, my ministry

나는 청지기다, 주님께 사역을 받았다(24)

나는 증인이다(24).

나는 전령이다(25). 선포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나도 성경 번역, 교회 사역, 말씀 편만하게 선포

나는 파수꾼이다(26), 겔33:1-9, 성도들을 보호하였다. 깨어 있어야 한다.

나 역시 여기 있는 동안 성경의 대부분을 강해할 것이다. 아무도 막지 못한다. 그리고 떠날 것이다.

에베소에서의 미래(28-35)

미래의 위험이 온다.

너희 자신과 양 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28); 목사와 가족 먼저 그 다음 교회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기관,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교회를 위협하는 존재들

외부의 적: 사나운 이리들(29), 마구 잡아먹는다. 거짓 교사들, 이단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32). 우리에게는 말씀밖에 없다.

내부의 적: 자리를 탐하는 자들(30), 파당을 짓는 자들, 디오드레베(요삼9-11), 내 것, 내 권리

또 다른 내부의 적(31-35), 가장 길게 설명함

1. 부주의한 것(31), 깨어 있지 않은 것
2. 얕팍한 지식(32), 깊이 성경을 묵상해야 한다.
3. 탐욕(33), 남의 것을 탐내는 것, 법인 카드
4. 게으름(34), 전담 목회 바람직, 그러나 바울은 자비량 선교, 목회, 목사가 게으르면 안 된다. 열심을
내야 한다. 성도들 무상 복지, 의료 공짜 안 된다.
5. 이기심(35), 주는 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에베소 장로들과의 이별(36-38)

우리는 헤어지기 마련이다.

바울의 소원, 주 예수님의 날에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것(고후1:14)

나의 목회 철학(고후1:24)

근² 사도 바울 맥잡기: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다
성경말씀: 행20:1-38

바울의 3차 전도 여행(18:23-21:15), 안디옥에서 떠나 예루살렘까지, 약 5년, 가장 큰 일: 에베소 사역, 다 마치고 드로아, 밀레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 초청,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 이별
오늘부터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힌 뒤 결국 로마로 가서 복음 선포하는 과정 설명, 위어스비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음, 그래도 끝까지 꾸준하게 밀고 나감, 성도의 삶

그의 친구들이 그를 오해함(21:1-17)

참으로 힘든 이별(1), 그러나 오순절까지 가고 싶은 마음, 서두름,
두로에 내림, 이레 머뭇(3-6)

두로의 성도들 반응(4),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바울의 3차 여행 중 중요한 것: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모금(롬15:25-27)

꼭 직접 가서 모금을 전해야 되겠다는 결심

이유: 가는 곳마다 유대주의자들 등장, 대개 예루살렘에서 내려옴, 할례를 받아야 한다. 바울을 극도로
대적함, 그래서 교회 분열, 이방인 교회의 모금을 예루살렘에 가져가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사로 화해하는 것을 보기 원함

그런데 두로 성도들 계속해서 가지 말라고 함

그러나 작별하고 올라감(5-6), 일주일 동안의 체류, 서로 사랑함

가이사랴에 도착함(7-14)

복음 전도자 빌립(행6:1-6; 8:5, 8:40)

대언자 아가보(10)가 유대로부터 내려옴

바울에 대한 경고(11), 두 번째 경고, 아가보는 약 15년 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위한 기근 모금
프로그램 수행(행11:27-30),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경고함

그들의 간구(12) 바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전할 수 있다.

바울의 말(13), 그러나 나는 가야만 한다.

결국 올라가기로 함(14)

바울의 결정은 옳은가, 그른가? 성령님의 경고를 무시하였나?

그의 서신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짐(완전함). 그러나 그는 연약한 인간이다.

그래서 결국 그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a. 옳지 않다는 주장: 가지 말라는 반복되는 경고 메시지, 약 20년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 그들이
네 말을 안 들을 것이다(행22:18). 이미 로마서를 기록하며 유대에서의 위협에 대해 적었다(롬
15:30-31).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이미 비슷한 내용 전달(행20:22-23)

b. 옳다는 주장: 가지 말라는 반복되는 경고 메시지는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조심하라는
것, 아가보의 메시지: 가지 말라가 아니고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행23:1의 바울 진술, 주님의 격려의 말(행23:11), 바울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우리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기억하고 바울 편에 서야 한다.

행15의 결정 이후 갈등이 끊이지 않음, 유대인 이방인 사이의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하는 것
본인이 직접 설명해서 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는 결국 로마로 가서 말씀 선포(행23:11)

본인이 원하는 자유로운 여행은 아니었지만 그는 결국 로마로 갔다.

예루살렘(15-17), 결국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약 100킬로미터 걸어서는 3일, 짐승 사용 2일
아마도 오순절 시즌, 수많은 순례객들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오해함(21:18-26)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감(18)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과 이들은 사역을 나누기로 함, 바울은 이방인, 베드로 등은 유대인(갈 2:7-10)

사역 보고(19), 그들의 기쁨(20)

그런데 잠시 후 문제 발생: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돌고 있는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20-21),

유대주의자들 수천 명의 주장: 모세와 조상들의 율법과 전통을 버려야 한다고 바울이 가르친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르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음

이미 예루살렘 회의에서 명확하게 결정됨(행15).

사도들은 다시 한 번 이를 반복함(21:25)

사도들의 걱정: 바울로 인해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일으킬 소요

왜 그렇게 많은 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모세의 율법을 고수하고 있을까?

이미 바울은 갈라디아서, 로마서 기록, 아마 읽지 못했을 것이다.

읽었어도 전통과 습관을 버리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

어쩌면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바울을 통해 히브리서 기록하게 함

히브리서의 내용: 구약과 신약의 비교, 구약의 성취, 훨씬 더 좋은 언약

결국 유대인들은 AD70년 예루살렘이 붕괴된 뒤로 전통적인 유대인 예배 중지, 더 할 수가 없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예루살렘에는 이런 사람들이 넘쳐난다.

수많은 유대인들: 예수님, 그분의 제자들이 유대인인 것을 모른다.

마1:1부터 유대인들이 나음을 모른다.

바울은 갈4:1-11에서 구약 유대교와 상관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문제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 전통과 관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음. 조건: 그것들을 통해

구원받는다 믿지 않는다면 OK, 롬14-15에는 날과 절기 음식 등의 문제, 이것은 개개인의

문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동일한 믿음, 서로를 존중하라. 분열을

일으키지 말라. 새벽 기도: 나는 개인적으로 불필요, 다른 사람들 100년 동안 해서 원하면 하라.

바울의 대적들이 이런 문제로 그를 공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1. 디모데에게 할례를 줌(행16:1-3)

2. 고린도에서 나사르 사람 서약(18:18)

3. 어떤 식으로든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습관에 반하는 것을 하려 하지 않음(고전9:19-23)

4. 그런데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문들이 그를 난처하게 만들

사도들의 제안(23-24),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의 율법을 존중함을 보여라.

나사르 사람의 서원을 한 네 명(민6)과 함께 지내라. 그들이 머리를 밀고 아마도 희생물 비용을 대라

그리고 그들이 정결례 기간을 마칠 때까지 성전에 같이 있으라.

왜 바울이 동의하였을까? 이것이 구원 문제라면 절대로 안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관습의 문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

그래서 다음날 제사장에게 보고하고 성전에 들어감, 서원은 하지 않음, 기간은 일 주일, 그 뒤 희생물을

바치면 끝이다. 그런데 예상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음

유대인들이 그를 오해함(21:27-40)

성전에는 이방인들의 뜰과 다른 뜰들을 분리하는 벽이 서 있다. 이방인들은 이 벽 너머로 갈 수 없다(행

2:14). 벽에 싸인이 달려 있다: 이방인은 이 벽을 넘어 성소가 있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어길

경우 죽음을 당해도 그것은 그의 책임이다. 로마 제국도 이 요구만은 들어 주었다.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의 주장(27-29)

아마도 이들은 에베소에서 왔을 것이다. 바울의 동행인 드로비모를 알아보았다(행20:4).

이들의 추측: 도시 안에서 바울과 드로비모가 함께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성전 안에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드로비모도 있을 것이다. 그의 친구니까
 그들은 곧바로 그를 잡아서 죽이려 함(30-32)
 성전의 북서쪽에는 치안 유지를 위해 안토니아 요새, 적어도 1,000명의 로마 군인들
 이들이 소요가 생기는 것을 보고 바울을 구출함(32-33), 무리들은 무슨 일로 모였는지도 모름(34)
 에베소 군중들과 비슷함(행19:29, 32)
 총대장 루시아(23:26), 2명의 백부장(200명 군인)
 총대장은 바울이 반역을 일으킨 이집트 사람으로 생각함(38), 무식한 사람
 바울은 말할 기회를 얻음(37), 그런데 그가 그리스말을 함
 바울의 신분 고백(39), 드디어 군중들에게 히브리말로 말하기 시작함(40)
 결론: 그의 친구들이 그를 오해함,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오해함, 자기 동포들이 그를 오해함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 랄프 왈도 에머슨: 위대한 사람들은 대개 자기 시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다.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루터,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우리도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의 최종 판단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자.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리 사도 바울 맥잡기: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변호하다
성경말씀: 행22:1-23:5

바울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급히 예루살렘에 감. 가장 중요한 이유: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모금(롬15:25-27), 꼭 직접 가서 모금을 전해야 되겠다는 결심

이유: 가는 곳마다 유대주의자들과의 갈등, 오해를 직접 풀기 위해, 선교 보고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의 권유에 따라 나사르 사람의 서원을 한 네 명의 사람들 비용, 1주일 동안 정결례, 유대인들의 선동, 로마의 총대장이 나타나 목숨을 구해 줌,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얻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오해함(친구들, 교우들, 동포들), 이제 동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위기, 바울은 22장에서 기회를 살려 자신을 변호한다. 1-2, 히브리말로 말함, 위어스비

이전 일들 진술(3-5)

바울은 다소 출신, 가말리엘의 문하생, 으뜸가는 랍비(갈1:13-14), 군중들 가운데는 그를 아는 사람이 더러 있었을 것이다. 심지어 기독교 박해(4), 당시 기독교 믿음은 이 길(요14:6; 행9:2; 19:9, 23; 24:14, 22), 심지어 다마스쿠스까지 가서(5)

군중들 비판하지 않고 너희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었다(3).

회심 기술(6-16)

이런 사람이 변하게 되었다. 회심(행9, 22, 26). 9장의 회심 이야기 반복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음, 산헤드린의 공식 업무 수행 등 신뢰성

증언 내용: 그들이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 계신다. 그분의 영광, 음성 체험

유대교의 공식 입장: 예수는 사기꾼, 험잡꾼, 십자가 죽음, 그의 제자들이 몰래 흠치고 소문을 냄 물론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이전에 믿었음, 그런데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살아 계신 분을 만남, 이야기를 나눔, 그 순간 회개하고 주님의 지배를 받음

아나니아 이야기(12), 시력, 임무(14-15)

16절 침례 오해, 침례를 받아 구원 No

엡2:8-10,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딤후3:3-7

그런데 성경에는 마치 침례 같은 행위가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구절이 더러 있다. 여기에 걸려 넘지는 사람들이 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침례, 죄들의 용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부르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는 믿음과 회개가 다 들어 있다.

행9:17을 보면 이미 성령 충만, 그러므로 침례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죄들의 용서 행2:38도 마찬가지, 회개가 먼저 나온다. 회개하여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막16:16)

누가 물을 가져다가 뿌린 것이 아니다. 일어나서 물이 있는 데로 갔다.

바울의 진술: 대다수 유대인들이 알고 있음

특별한 소명(17-29)

곧바로 다마스쿠스 사역, 아라비아로 감, 그 뒤에 예루살렘으로 왔으나 교회 리더들이 수용하지 않음, 바나바의 등장(행9:26-29), 바울과 주님의 대화,

주님의 말씀(18), 바울의 말(19-20), 주님의 말(21)

바울은 자신의 변화, 예수님은 메시아 증언, 몇 사람 구원, 스테반 사건 만회

이제 바울은 왜 자기가 이방인 사역 하는지 설명하려 한다.

유대인들이 용납하지 않음(22-23), 우리는 이방인들과 상관없다.

바울이 이방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으면 아마도 석방

그러나 이것을 꺼냄, 이것이 그의 사명, 그의 부담

총대장의 명령(24)

바울의 말(25)

바울의 말(28)

드디어 유대인 공회 앞에 출두함(30), 그의 친구들 교우들: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는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끝까지 나아감

이게 끝인 줄로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 로마의 죄수로 가지 않았으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에게

복음 선포, 우리가 당하는 일들도 마찬가지, 이런 저런 노이즈,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용기가 있어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

공회에서의 증언(23:1)

총대장의 문제: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하는 것을 보니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으로 보임

그런데 상부에 보고하고 죄수에게도 감옥에 갇혀야 하는 이유를 대야 하는데 알 수가 없음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를 정하도록 하려고 공회 앞으로 데려 감(70 혹은 71명 장로, 유대인 리더들),

대제사장이 사회자, 민족에 관한 일들이 생기면 유대인 법규 해석, 범법자 심문

심각한 경우 죄인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도 로마 사람들이 부여함

그들이 바울을 죽일까 봐 옆에서 경계하면서 보고 있음, 죄수가 도망가면 큰일

바울의 말: 나는 유대인이다(1), 좋은 유대인 시민이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양심은 바울의 서신서에 20번 이상 나오는 중요한 말

양심은 옳은 것을 승인하고 그른 것을 거부한다.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하면 양심이 괴롭다.

창문과 같다. 맑으면 빛이 잘 들어온다.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양심이 뜨거운 인두로 지저진 사람(딤후4:2), 빛이 안 들어 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양심이 깨끗해짐, 선한 양심, 순수한 양심(딤후3:9)

더럽혀진 양심(고전8:7), 계속 죄를 지으면 악한 양심(히10:22), 이 경우 올바른 일을 하면 오히려

양심에 가책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핍박, 그런데 어떻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때까지 그가 받은 빛은 그게 전부 다였다.

회심 후 블라인드가 사라짐(고후4:6), 다른 세상이 열렸다.

그래서 교회나 목사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누르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영혼의 자유 압박 No!

2군 사도 바울 맥잡기: 사도 바울 가이사랴에 투옥되다

성경말씀: 행23:1-35

바울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급히 예루살렘에 감. 가장 중요한 이유: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모금(롬15:25-27), 꼭 직접 가서 모금을 전해야 되겠다는 결심, 그러나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 성전에서 붙잡힘, 총대장은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으나 유대인들 또 소도오, 그에 대한 혐의를 찾기 위해 그를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움, 위어스비 강해 중심으로 설명

바울의 말(23:1), 양심 설명, 양심이 살아야 한다. 회심 후 블라인드 사라짐(고후4:6), 다른 세상이 열림. 그래서 교회나 목사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누르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영혼의 자유 압박 No! 대제사장의 반응(2), 바울이 선한 양심을 말하니 격앙되었다. 그를 치라고 말함(2).

아직 죄가 입증되지도 않았다.

바울의 반응(3), 의로운 분노, 회칠한 담은 위선자(마23:27)

사람들의 말(4)

아나니아 대제사장: 심히 타락한 사람, 십일조를 훔침, 스스로 권위를 세움, 로마 사람들을 기쁘게 함 악한 자이지만 바울은 그의 직무를 보고 존경을 표시함(5)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3), AD 66년 유대인들 로마에 봉기, 아나니아는 로마 사람들과 친하게 지냄,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하다가 유대 게릴라들이 헤롯의 궁의 도수관에 숨어 있는 그를 발견하여 죽임

바울의 답변(5): 어쩌면 비공식적인 회의, 대제사장 의복을 걸치지 않음, 혹은 알면서도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 경멸하듯이

바울은 출22:28 인용, 자기를 치라고 말한 자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 가능성

바울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직무에 대해 존경을 표시하였다. 큰 차이

바울의 지혜: 군중 파악, 유대교의 교리로 문제 해결하려 함(6-10)

유대인들과의 문제의 핵심: 그의 부활 교리(6)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부활 교리 및 사후 세계에 대해 완전히 다른 견해 이 교리를 옹호함으로써 공회를 분열시켜 위기를 모면하려 함

바리새인: 성경대로 믿고자 함, 보수주의자, 사두개인: 현실주의자, 자유주의자(8)

이 전술이 먹히면서 교회가 심각하게 분열되고 결국 총대장이 나서서 바울을 데려감(9-10)

왜 이런 식으로 피하려 하였을까? 정치적 계산? No! 지혜롭게 행한 것임

대제사장의 행동을 보니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이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신성모독 죄로 정죄를 받아 돌에 맞아서 죽일지 모름

또한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가세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일단 청문회를 속히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함, 그래서 그는 지혜롭게 행동함

또한 바울의 주장은 옳았다.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이 핵심(24:21; 26:6-8; 28:20)

기회가 있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11)

가운을 내라. 용기를 내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11).

1. 회심 후 몇 년이 지난 뒤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함(22:17-21). 이방인들에게 가라.

2. 바울이 고린도에서 낙심 중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18:9-10).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3. 지금 바울이 또다시 낙심 중에 있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심(23장)

4. 로마로 가면서 폭풍우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심(27:22-25)

5.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주님이 나타나심(딤후4:16-17), 마28:20

주님의 메시지: 1. 기운을 내라(요16:33)

2. 칭찬의 말씀, 왜 예루살렘에 갔냐는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격려의 말씀, 증언하느라 수고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는 그의 증언이 수용되지 않았다. 바울의 일생: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는 듯한 인상, 자기 동료들, 동포들에게서 큰 오해를 받아 이 지경이 됨, 공회증언 혼란 가중 그런데 주님은 그의 증언을 기뻐하셨다. 그것으로 모든 것 끝
3. 확신의 말씀, 로마로 간다. 그의 소원(행19:21; 롬15:22-29)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불가능, 그런데 주님이 확신을 주신다. 너는 로마로 간다.
그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는 로마로 갈 것 확신함

바울과 유대인 음모자들(12-35)

바울의 사람: 회심 이후부터 죽음 직면, 거의 다 유대인들로부터

1. 다마스쿠스 증언(행9:22-25), 2. 예루살렘 방문(행9:29)

3. 1차 여행 비시디아 안디옥(행13:50-51), 4. 이고니움에서 돌로 치려 함(14:5), 5. 루스드라에서 돌로 침(14:19-20), 6. 고린도 체포(18:12-17), 7. 에베소 위기(20:3, 19), 8. 예루살렘 위기, 살전2:14-16에 요약됨

드디어 40명의 유대인 맹세(12-14), 이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알지 못함. 그분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모름,

바울의 누이와 그의 아들(16), 처음이자 마지막 등장

아들이 백부장에게 고하고 총대장에게 고함(21)

총대장 루시아가 적당한 조치를 취함: 어쩌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혹은 바울을 믿고 사도행전에는 로마의 병사들 이야기: 백부장 고넬료, 지금 루시아, 27장에는 백부장 율리오, 대개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를 베풀

그냥 일반 시민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갔다면 매복한 사람들 기습, 죽음

470명의 군인들 준비(23),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 470명은 안토니아 요새 인원의 절반 편지 내용(26-30): 상당히 객관적으로 진술함, 특별히 29절 참조, 로마 군인들의 태도

로마 사람들의 행동: 1. 빌립보(행16:35-40), 2. 고린도의 갈리오(행18:14-15), 3. 에베소의 고을 서기(19:40), 4. 예루살렘의 루시아 모두 동일한 증언, 5. 심지어 로마에 있던 유대인 리더들도 동일한 증언(28:21)

즉 엄격한 유대주의자들을 제외하고는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들 인정, 바울 인정
밤 9시 출발, 안디바드리까지 약 60킬로미터(31)

이튿날 기병들만 두고 나머지는 돌아감(32), 그 뒤 약 40킬로미터, 가이사랴

당시의 유대 총독: 벨릭스, 그의 부인은 유대 여인 드루실라, 그녀는 헤롯 아그립바의 딸(12:1), 자기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가 됨, 그녀는 헤롯 아그립바 2세의 누이(행25:13)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증언: 벨릭스는 천박한 노예의 영을 가지고 황제처럼 큰 권력으로 유대 지배. 말 그대로 조폭 무법자

바울은 거의 왕의 대접을 받으면 가이사랴로 감

그리고 일반 감옥이 아니라 헤롯의 재판정 안에 있는 곳에서 지냄(34-35)

가이사랴, 3차 여행 마치고 돌로, 가이사랴, 거기에 빌립과 그의 네 딸, 아가보라는 대언자, 예루살렘에서 넘겨진다(21:8-11), 아마도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도와주었을 것이다.

이번 장 요약

사람 편에서 보면 참 일이 안 풀린다. 그런데 바울의 말 실현(20:24).

아무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하고자 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그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는 길을 택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시34:7)

나와 우리 교회,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어려움과 모욕, 수치 이겨 내며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23 사도 바울 맥잡기: 사도 바울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다

성경말씀: 행24:1-27

바울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짓 선동에 의해 붙잡힘.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였으나 허사, 결국 그가 죽을까 봐 로마 군대의 총대장이 밤에 급히 그를 가이사랴로 내려보냄, 벨릭스 총독,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죽이려고 대제사장 아니니야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와 그를 고소함, 오늘은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여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바울

24-28장까지는 바울 생애에서 가장 힘든 시절,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복이 아니라 화가 있음.

이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도 마찬가지, 진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일, 여기서 인생의 교훈을 찾아보자.

먼저 로마 제국의 특징: 로마는 법치 국가, 특히 시민을 보호하려는 정책, 국가의 가장 큰 임무는 시민 보호, 23장에서 우리는 로마의 법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

거짓 고소(1-9)

거짓 고발(1), 대제사장 아니니야와 여러 장로들, 더둘로라는 변호인 대동, orator 말을 잘하는 사람 내려오다. 예루살렘은 700미터 고산 지대, 어디서든 올라가야 하고 다 내려가야 한다.

변호인 더둘로의 아첨하는 말(2-3)

성경은 아첨하는 것을 미워한다(잠26:28), 살전 2장

벨릭스의 개혁으로 인해 온 땅에 화평, 아이러니 바울을 죽이려고 하여 470명 군사 동원 벨릭스는 좋지 않은 자, 강도들을 제압하기도 하고 또 강도들을 사용해서 대제사장 요나단을 살해하려고도 함, 천박한 성품의 소유자, 이런 사람에게는 아첨이 통한다.

바울에 대한 더둘로의 세 가지 고소 거리

1. 개인적인 고소 거리: 전염병 같은 자(5)
2. 정치적인 고소 거리: 선동을 일으키는 자, 악한 종교를 퍼뜨리는 주동자
3. 종교적 교리적 이유: 성전을 더럽히려 한다.

1. 개인적인 이유: 전염병 같은 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유대인들 과거의 전통 수호, 바울은 새 시대가 도래하였다.

로마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화평, 화평을 깨는 것 엄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 부흥이 일어나든지 폭동이 일어남

그 이유: 로마 제국 전역에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마찰이 생김

바울이 이런 소요를 일으키도록 만든 주체: 로마 사람이 아니라 그의 동족 유대인들

그런데 이런 고소 거리는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됨(눅23:1-2, 5)

2. 정치적인 이유: 이것은 심각한 문제, 불법 선동은 큰 죄,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 허용, 그러나 늘 예의주시하며 감시하였다. 그래서 더둘로는 총독의 주의를 끌기 위해 그가 선동을 일으킨다고 말함, 그의 말은 과장이 심함, 그런데 세상일은 이렇게 과장해야 풀리는 경우가 많음

사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이다' 외침(행17:7), 그런데 로마 사람들 눈에는 이것이 마치 반역으로 보일 가능성이 큼(행16:20-21; 17:5-9), 또한 당국의 허락 없이 다른 종교를 세우는 것은 불법, 그런데 더둘로는 바울이 나사렛 종파의 주동자라고 고발함

처음에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식됨, 당국에 문제없음, 유대인 회당에는 이방인 구도자들, 개종자들이 있었다. 교회도 마찬가지(유대인+이방인),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지면서 유대인 회당과는 다른 모습, 로마 당국은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별개로 보기 시작함

기독교를 유대교와 경쟁하는 종교, 그래서 소요를 일으키는 종교로 보기 시작함, 박해

3. 성전을 더럽히려 함, 그를 잡아서 자기 법에 따라 처리하려 함(6), 그런데 총대장 루시아가 그를 구했고 결국 우리가 가이사랴로 내려오게 되었다(7-8).

결국 우리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사는 좋은 사람들, 조용히 해결하려 하였다.

원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말: 성전을 더럽혔다(행21:28), 더들로의 말: 더럽히려 하였다(24:6). 더럽힌 것이 아니라 더럽히려 하였다고 완화해서 말하였다.

1. 사실을 조사하면 자기들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됨
2.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즉 증인들이 다 사라지고 없음
3. 벨릭스는 이미 루시아로부터 온 편지를 가지고 있다. 루시아의 말을 더 믿었다. 그러므로 조금 완화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

더들로의 말: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허용한 권리, 이방인 가운데 누구든 한계를 넘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심지어 죽여도 된다. 바울이 바로 이 경우, 그런데 로마 총대장이 이를 방해하였다. 그리고는 썰기를 박는다(8). 다른 유대인들도 그렇다고 함(9)

바울의 변호(10-21)

벨릭스는 스스로 심문하지 않고 바울이 변호하게 함(10)

그는 아첨하지 않음(10, 살전2:1-6), 그의 직무에 감사

1. 더들로에 대한 변호(10-16)

이제 열이틀 되었다. 선동을 일으키거나 더럽힐 기회가 없었다.

성전에서 그저 예배드렸을 뿐이다. 성전이나 도시에서 선포한 적이 없다.

첫째 날: 예루살렘 도착(21:17), 둘째 날: 야고보와 사도들 만남(21:18)

셋째 날-여섯째 날: 성전에서 나사를 사람들과 함께하다 붙잡힘(21:27)

일곱째 날: 유대인 공회(23:1-10), 여덟째 날: 가이사랴로 도피(23:12-13)

아홉째 날: 가이사랴 도착(23:33), 열째 날-열두째 날: 가이사랴에서 기다림, 그리고 청문회 나사르 사람의 서원을 한 네 사람은 바울이 도착했을 때 이미 정결례 시작한 상태

그 결과(12-13)

2. 선동과 이단 문제

대제사장은 사두개인, 그러나 같이 온 자들 가운데는 바리새인, 그래서 바리새인의 믿음을 다시 강조 바울의 주장: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다른 신이 아니다. 다만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새로운 방식, 살아 있는 방식으로 그분을 믿고 경배한다(14), 그것은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요5:23).

그는 이것을 이단이라고 말하였다. heresy는 원래 분파이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는데 거기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함. 예수님의 반박(마22:23-33).

또한 나는 부활을 믿는다(15-16), 바리새인들의 교리,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난처하게 됨

3.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고발 변호(17-19)

그는 성전을 더럽히려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 동족들을 돕기 위해 왔음

또 본인의 서원을 마무리하려고 왔음, 네 명과 함께 예배드릴, 그런데 언제 성전을 더럽히나?

4. 이제 바울의 간청: 피고인 내가 여기 있으니 고소인들이 주장할 것을 말하게 하라(20). 아니면 여기서 무죄 입증, 석방, 그리고는 썰기를 박음(21). 사도행전의 주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나는 성경대로 믿는다.

5. 이런 일이 생길까 봐 아나니아는 에베소 출신 유대인들을 데려오지 않음

6.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를 반대하지 않고 로마 제국의 치리를 반대하지도 않음 천명

벨릭스의 어리석은 결정(22-27)

벨릭스는 이 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24:22).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 모든 정보를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빛을 택하지 않고 어둠을 택하였다(22). 그리고는 그에게 자유를 주었다(23): 그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사실 확신

아마도 그의 부인 드루실라가 직접 바울에게서 듣고 싶어 함. 그래서 다시 그를 부름(24)

그녀의 할아버지 헤롯 대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함(마2), 자기의 삼촌 안디바: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 모독(눅23:6-12), 자기 아버지 헤롯 아그립바;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감옥9행12)
그런데 이 길의 창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급속도로 불어남

바울의 권고(25): 의, 절제, 심판

1. 의: 우리의 죄들(주로 과거의 것들)
2. 절제: 현재의 유혹들 절제, 드루실라 자기 남편을 버리고 결혼, 벨릭스는 세 번째 아내
3. 심판: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벨릭스의 거부(25), 그는 다시 회개의 기회를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베스도가 총독으로 옴

지금 구원받아야 한다. 요약: 위기에 빠진 바울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심
우리 교회, 나라 가정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지혜, 용기를 구하자.

24 사도 바울 맥잡기: 사도 바울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다

성경말씀: 행25:1-26:32

바울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힘.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하므로 총대장이 급히 가이사랴로 보냄,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공회 사람들 만남, 바울의 말: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길을 따라 그렇게 동일한 하나님께 경배(행24:14-15), 새 시대가 열렸다. 나는 부활을 믿으며 그 소망 안에서 산다.

벨릭스의 판단: 연기하고 다음에 하자. 본인도 아내와 함께 바울의 말 들음, 의와 절제와 심판(25) 믿음 거부, 구원을 영원히 잃음, 2년 뒤 베스도 총독, 유대인들의 환심, 그에게 넘겨 줌
오늘은 25, 26장을 통해 로마로 가기 전에 베스도와 아그립바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 살펴본다.
지난주 이야기대로 행21-28장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이야기, 이것은 인생의 큰 교훈
우리처럼 새 시대를 여는 사람들에게 중요함

베스도 총독: 벨릭스보다 좋은 사람, 법대로 해 보려고 함, 유대인들의 정치 논리가 만만치 않음
본인은 로마의 총독, 특정한 이유 없이 로마 시민이 감금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함

베스도와 유대인 지도자들(25:1-12)

총독 부임, 유대인 지도자들과 잘 지내야 함 느낌,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감(25:1)

유대인 지도자들의 간청: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보내라. 그를 죽이려고(3).

당시 대제사장은 이쉬마엘, 바로 전에는 요나단(그는 벨릭스에 의해 살해당함)

유대인들은 오직 바울을 죽이는 데에만 관심,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이런 계획을 모름

바울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호 약속(23:11)을 믿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회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그를 죽이려 함(3)

베스도는 지혜롭게 거절(4), 내려와라(5)

열흘 이상 머무르다가 가이사랴로 감, 유대인들 고소, 그러나 증거가 없음(7)

바울의 말: 나는 잘못이 없다(8)

베스도의 계약(9),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피고의 동의 없이는 안 됨

바울의 말(10-11), 예루살렘에서는 안 되겠다. 여기를 피해야겠다.

바울의 결심에는 비장함(11), 그 결과 그들은 로마의 황제 네로에게 보내기로 함

이렇게 해서 그는 유대인들에게서 벗어남

아그립바와 버니게의 등장(25:13-22)

총독의 문제: 유대인들을 화나게 하지는 않았지만 무슨 죄목으로 로마에 보낼지 걱정

그런데 아그립바의 방문(13), 버니게는 그의 누이, 헤롯 대제의 증손자, 야고보를 죽인 아그립바 1세의 아들,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 그는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고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보호를 받았다.
아버지가 죽자 그는 17세의 나이에 자기 아버지의 왕국이 아니라 자기 삼촌의 왕국인 갈시스를 다스렸고 그 뒤 주후 53년에 갈시스를 떠나 자기 아버지가 처음 소유했던 지역 즉 바타네아와 드라고닛(드라고니 티스)과 아우라니티스와 아빌레네의 왕으로 이동했다.

버니게: 그녀는 처음에 자기 삼촌인 갈시스 왕 헤롯과 결혼했으나 그가 죽은 뒤에 자기 오라비 아그립바와의 근친상간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길리기아의 플레몬 왕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나 이 관계가 끝난 뒤에 그녀는 자기 오라비에게 왔다가 베스파시안과 티투스의 정부(情婦)가 되었다.

아그립바 2세는 자기 누이와 함께 삶, 근친상간(레18, 20)

로마 정부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권한을 아그립바 2세에게 줌

베스도가 깨달은 일: 이번 문제는 민간 법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 자기는 잘 모름

특히 부활 문제(행25:19),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제

그래서 베스도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서 해결하려 함(20), 바울의 반대(21)

그런데 아그립바가 나타남, 아마도 그가 풀 수 있을 것이다(13).

사실 아그립바는 유대인들 문제에 정통함(26:2-3)

아그립바도 직접 그의 말을 듣고 싶어 함(22), 이때에는 이미 기독교인들이 많이 불어남

베스도와 아그립바 그리고 바울(25:23-26:32)

드디어 다음날 아그립바와 베니게가 옴(23)

보잘 것 없는 바울 하나를 심문하기 위해 총독과 왕이 나타남, 예수님의 약속(행9:15)

청문회장에는 총독, 왕 그리고 아마도 총독의 부하들

이제 그는 다시 증언 시작, 복음 선포

베스도의 말(24-26), 죄목을 알기 원한다(27)

아그립바의 회의 주제, 자유롭게 답변하라(26:1)

바울의 말(2-3), 심지어 아그립바는 구약의 대언서들도 잘 안다(26:27).

바울의 말 요약(26:4-22)

1. 나는 바리새인으로 살았다(4-11), 12살 이후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유대인들이 다 안다.

유대교 교육, 바리새인, 랍비가 되려고 하였다.

감옥에 갇힌 이유: 1. 부활과 2. 이스라엘의 소망

나는 유대교 정통파 사람이다. 히브리 전통을 중시한다.

중요한 말, 우리 열두 지파(7), 북왕국 아시리아 BC 721년경 이스라엘 열 지파 정복,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나 10지파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 예수님도 열두 지파 언급(마19:28), 야고보도

(1:1), 요한도(계7:4-8; 21:12),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알며 약속을 성취하신다.

8절의 당신들, 로마인 그리스인, 유대인 모두, 그들은 부활을 안 믿는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주제, 고전15장, 부활이 없으면 믿음은 헛것(고전15:17-19)

2. 나는 원래 기독교인들을 극도로 핍박하던 자(9-11)

다마스쿠스 도상 회심 이야기(12-15)

예수님의 사명 부여(16-18):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교회의 사명도 동일하다(17-18), 모든 성도들의 사명

3.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였다(19-21)

그래서 곧바로 복음 선포(20)

그 결과 죄인(21)

4. 지금까지 해 온 일(22-23),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처형, 부활(고전15:3-4)

5. 분명한 사실(21), 유대인들은 무죄한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 하였다.

베스도의 반응(26:23-26)

아그립바가 회의 주제, 그런데 베스도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발언

너는 미쳤다(24), 나는 정신이 올바르다(25)

바울의 말(26): 이 일들 즉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십자가와 부활 승천)은 다 알려진 일들이다.

십자가 처형 당시 유대인 공회, 총독 빌라도, 예수님의 제자들 반대자들

미쳤다는 말,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니다. 미쳤으면 요양

바울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으므로 양심에 부담, 벗어나기 위해서

아그립바에게 도전(27-32)

아그립바는 유대인 문제에 정통함(26:23)

왕은 대언자들의 글을 믿느냐(27), 믿는다고 믿는다.

대언서의 주제: 나사렛 예수님,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

유명한 대답(28), 짧은 시간에 설득, almost Christian, 아그립바도 펠릭스처럼 기회를 놓침

바울의 대답(29), 위대한 대답

베스도와 아그립바: 바울이 자기들에게 큰 광신을 가지고 있음을 느낌, 양심의 부담

여기서 피하려면 회의를 멈추어야 한다(30-32).

그들의 결론: 바울은 결박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결론

베스도와 아그립바가 판사, 바울은 죄수, 끝날 때는 정반대가 됨

이들은 빛을 받았다. 그러나 고의로 눈을 감았다.

바울을 로마로 보내면 끝이다. 그러나 아마 이들은 평생토록 양심의 고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특히 세상을 바꾸려 할 때 바울과 같은 운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지켜주신다. 상황이 역전된다.

25 사도 바울 맥잡기: 사도 바울 로마로 가서 순교하다

성경말씀: 행27-28

에베소 사역 중, 내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행19:21) 작정함. 그러나 죄수의 몸으로 가리라고는 전혀 생각 못함, 롬1:14-16 로마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공유, 그리고 스페인까지 (15:28), 주님은 분명히 내가 로마로 간다고 하심(행23:11). 그러나 바울이 원하는 방식은 아님 로마로 가면서 파선당하는 일, 로마 도착 등 왜 누가는 길게 2장이나 썼을까?

27장에는 파선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바울의 리더십,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 주려고

이전부터 사람들은 인생을 항해로 생각함, 파선과 같은 어려움이 생긴다. 이때에 리더십 필요 리더는 여러 역할, 오늘은 그것을 볼 것이다. 위어스비 사도행전 참조

조언자 바울(행27:1-20)

행21:18 이후로 누가는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음, 그러나 여기부터는 다시 기록함(우리), 누가는 그의 의사, 아리스다고는 그의 시중드는 사람(2), 바울의 감사: 이 친구들, 자유 반납, 사랑, 아리스다고, 나와 함께 갇힌 자(골4:10), 동료 죄수(fellow prisoner)

여하튼 그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백부장 율리오의 인도를 받으며 로마 행 배를 탐

가이사라 출발, 하루 만에 시도 130킬로미터, 시돈에서 친구들 방문(3)

시돈에서 무라로 항해가 어려움(서풍), 키프로스를 밑에 두고 그 사이로 감(4-5)

무라에서 이탈리아 행 배로 바꿈, 알렉산드리아 출발 배, 276명의 죄수(6)

당시 로마는 이집트의 곡식 의존

무라에서 크니두스까지 200킬로미터, 바람 때문에 여러 날, 그래서 남쪽으로 가서 '아름다운 항구' 도착(8)

백부장의 결정: 아름다운 항구에서 겨울을 날 것인가? 아니면 60킬로미터 떨어진 베니게로 갈 것인가?

바울의 조언: 여기서 겨울을 나라, 9절의 금식은 속죄일 금식, 10월경, 이때에는 바람이 서풍이 됨

지금까지 바울은 이미 세 번이나 파선 경험(고후11:25), 그래서 경험이 있다.

백부장의 생각: 아름다운 항구는 겨울에 춥다. 베니게로 가야겠다. 성장과 선주의 주장: 가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좋아짐(13). 떠남, 그러나 바람이 반대로 불기 시작함, 태풍, 유로클루돈 북동쪽

배를 운전할 수 없음, 그대로 흘러가게 둬, 결국 40킬로미터 떠내려가서 글라우다 근처로 감

폭풍우가 심하게 쳐서 큰 위기, 다 내다버림, 구원받을 희망이 보이지 않음(20)

하나님의 사자의 조언을 듣지 않다가 변을 당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격려자 바울(행27:21-44)

바울은 죄수로 떠나서 그 무리의 대장이 되었다. 아무도 이 위기의 때를 어떻게 벗어날지 모름

위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냄, 지도력이 드러남

먼저 바울은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 등을 부드럽게 책망함(21), 그리고 격려함

1.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공유(22-26), 하나님의 천사, 배와 화물은 잃겠지만 목숨은 No(22)!

바로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격려의 말씀을 주심(23-24)

지금은 그런 환상이 거의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사41:10; 43:1-5)

2. 그들에게 경고함(27-32)

14일 동안 배는 표류하며 800킬로미터나 항로에서 벗어나 아드리아 바다, 물의 깊이가 줄어 들

육지가 있음을 알고 도망하려는 선원들(30), 이유: 하나님의 말씀 불신

바울의 경고, 이들이 남아야 한다(31).

3. 본보기를 보여 줌(33-38)

사람들 배에서 14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함, 바울의 말, 이제는 먹고 건강을 챙겨야 한다(34).

육의 건강도 챙겨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감사 기도 드리고 먹기 시작함(35), 한 사람의 태도가 전체를 움직임

4. 죄수들을 구조함(39-44)

선원들의 걱정, 죄수가 하나라도 도망가면 자기 목숨 위태로움(42), 그러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기

위해 그들의 의도를 막음(43)

중요 사항:

1. 우리가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어길 때 인생의 폭풍이 온다.
2. 폭풍은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 준다. 선원들의 이기심, 다수 사람들의 무기력함, 바울의 하나님 의지
3. 폭풍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 하나님이 헤쳐 나갈 힘을 주신다.
4. 폭풍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회 제공, 주님의 복음 증언 기회

협력자 바울(행28:1-10)

멜리테 도착(몰타)(28:1), 거주민들 도움, 긍휼을 베풀(2)

바울은 왕 노릇 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섬김

독사 이야기(3-6), 원주민들 생각, 그들이 섬기는 정의의 보복이라는 신, 그가 파선의 위험은 벗어났지만

보복의 신이 그를 그대로 두지 않음, 그런데 죽지 않음, 생각을 바꾸어 그는 신이라고 함(6)

1차 선교 여행, 루스드라 걷지 못하는 허약한 자 고침(행14:6-18), 여기서도 신이라고 함

마가복음 16장 17-18절 말씀 성취, 사도의 표적들이 지속되던 시대

지금 독사에 물리면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 이런 기적이 늘 존재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바울은 자기 병도 못 고치고 드로비모의 병도 못 고침(딤후4:20)

바울 일행 멜리테에서 3개월, 바울은 거기서도 원주민 추장의 병을 고쳐 주고 많은 사람들 치유

기독교의 핵심: 세상의 빛과 소금,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마5:16)

복음 선포자 바울(행28:11-13)

또 한 번 알렉산드리아 배(11), 카스토르와 폴룩스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수호신

시리큐스까지 130킬로미터, 레기움까지 110킬로미터, 나폴리의 항구 푸테올리까지 290킬로미터, 여기서 1주일 체류(14)

바울이 온다는 소식이 로마에 전해짐

백부장과 바울 일행 유명한 아피아 길로 200킬로미터 로마로 감, 가는 도중 아피아 광장에서 성도들

만남(로마에서 70킬로미터 떨어진, 15절), 그 뒤 '세 여관'에서 다른 성도들

드디어 바울도 성도들을 만나며 위로를 얻음

바울의 관심: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바울이 온다는 것을 모름, 다만 그리스도교가 여러 곳에서

비방을 받는다(21-22). 로마서를 보면 로마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음(롬3:8;

14:1 등)

바울의 주장(19): 카이사르 호소, 유대인들 대적하려는 것 아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죄수가 되었다,

바울이 이들 초청,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약성경 가지고 그리스도 증언(23)

지금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회당에서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선포, 로마에서는 자기

집으로 초청, 얼마는 수긍, 얼마는 반대, 떠나면서 자기들끼리 논쟁(24-25)

여하튼 신실하게 유대인들 앞에서 증언, 이제 이방인 차례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 6:9-10, 예수님도 이 말씀 인용,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 요한도(요12:39-40)

로마서에서도(롬11:7-8), 사복음서부터 로마서까지

듣기는 들어도 실제 듣지 못함, 들을 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함, 보는 눈

유대인 지도자들 많은 성경 지식, 그러나 영적 분별력이 없다.

바울은 멈추지 않고 자기 집을 개방해서 모두가 오게 함(30-31)

바울을 지키는 사람, 사슬로 그에게 매여 있다. 6시간마다 교체, 그들은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

그 결과 얼마가 구원받음(빌1:12-14; 4:22)

2년 동안 로마에 있으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로마에서 그는 디모테, 마가, 누가, 아리스다고, 에바브로, 유스도, 데마, 오네시모,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 만남

누가의 기록은 여기까지, 그는 풀려나기를 희망함, 그리고 잠시 풀려난 것으로 보임

풀려난 뒤(AD63-66년경) 그는 어쩌면 스페인에 감, 디모테전후서 디도서

AD 67년경에 다시 붙잡힘, 이번에는 집이 아니라 감옥에 갇힘, 그리고 이때에는 로마의 성도들이 다 그를 버림(딤후4:16-17). 그러나 예수님이 그와 함께 서심

그 당시 황제는 네로, AD64년경 대화재, 그리스도인들 책임, 네로는 68년에 통치 종료

전통: AD 67년경 로마의 트레 폰테나 교회가 있는 터에서 참수형을 당했을 것이다.

바울 맥잡기, 사도행전 맥잡기를 끝내며

그가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 세계 각처를 다니며 겪은 모든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처한 위치와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가를 보여 준다.

그는 여러 종류 문화권의 사람들, 사상가들을 만나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의 이런 노력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본성과 우리가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를 알게 된다. 노예, 총독, 왕, 카이사르, 유대인, 이방인,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남녀노소, 마귀 들린 사람, 동역자, 제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것은 바울이 살던 세상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간 것과 비슷하다. 하나님, 사람, 성경 동일하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선교나 지금의 선교나 내용이 비슷하다. 사역도 마찬가지이다.

누가의 사도행전: 단순한 고문서가 아니다.

주님께 신실하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바울과 함께하신 주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며 강력하게 일하신다.

마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